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The moment the boundaries disappear, beauty blooms

목차

부평구청장 인사말 4
부천시장 인사말 5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6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10

ARTIST 1 — 100

1 ***강전희*** 14
2 ***강해운*** 16
3 ***고주안*** 18
4 ***공지선*** 20
5 ***곽동희*** 22
6 ***권민주*** 24
7 ***권순금*** 26
8 ***김규학*** 28
9 ***김동균*** 30
10 ***김땡땡*** 32
11 ***김보경*** 34
12 ***김성호*** 36
13 ***김영경*** 38
14 ***김윤아*** 40
15 ***김준범*** 42
16 ***김지윤*** 44
17 ***김찬란*** 46
18 ***김탁*** 48
19 ***김탄소*** 50
20 ***김태균*** 52
21 ***김태덕*** 54
22 ***김혜란*** 56
23 ***김호경*** 58
24 ***노찬균*** 60
25 ***도은*** 김기곤 62
26 ***델퍼*** 이성삼 64
27 ***미람*** 공정은 66
28 ***미팡*** 김상숙 68
29 ***박연희*** 70
30 ***박영균*** 72
31 ***박영환*** 74
32 ***박주연*** 76
33 ***박지애*** 78
34 ***박진이*** 80
35 ***박창환*** 82
36 ***방영문*** 84
37 ***비비드*** 김연아 86
38 ***서경애*** 88
39 ***서경희*** 90
40 ***서도이*** 92
41 ***서민지*** 94
42 ***소수빈*** 96
43 ***소요김*** 김주량 98
44 ***손민석*** 100
45 ***송종화*** 102
46 ***송차영*** 104
47 ***신은정*** 106
48 ***신지우*** 108
49 ***약과*** 110
50 ***양지훈*** 112

특별전 MusiCity

조은성 216
캐쓰 Kath 217

51 양천 114
52 양희진 116
53 오순미 118
54 오휘빈 120
55 우솔 122
56 유리 124
57 유림 최유림 126
58 육은정 128
59 윤공주 130
60 윤산 132
61 유정 최유정 134
62 이경화 136
63 이다겸 138
64 이려진 140
65 이민구 142
66 이상민 144
67 이소연 146
68 이양헌 148
69 이영숙 150
70 이이나 152
71 이정엽 154
72 이정희 156
73 이지웅 158
74 이청규 160
75 이혜선 162
76 임수식 164
77 임원빈 166
78 장인희 168
79 전우현 170
80 전찬종 172
81 전희경 174
82 정문희 176
83 정진 178
84 정진석 180
85 조혜은 182
86 청화 오지혜 184
87 최성덕 186
88 최주림 188
89 최지현 190
90 추상민 192
91 쿠니 이재권 194
92 하자유 196
93 한경화 198
94 한송이 200
95 허선정 202
96 홍정희 204
97 황윤서 206
98 황재원 208
99 황택 210
100 희박 212

부평구청장 인사말

차준택
부평구청장

문화도시에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는 행정구역은 다르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로 시작해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부터 인천에 속해 1995년 부평구로 개칭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어져 온 부평과 부천의 관계를 오늘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발현시킬 수 있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취향과 안목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감상을 넘어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근래에 미술품 투자 붐이 불면서 곳곳에 아트페어가 성행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평에 시각예술 행사와 갤러리가 부족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시의 연합으로 부평·부천아트페어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트렌드를 쫓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작품을 선보이고 문화도시 시민들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대안적인 축제를 여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술은 분명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또한 예술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도시의 특색이 묻어나는 예술가의 작품창작과 소유하고 싶은 작품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미술품 판매와 소장의 경험이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를 넘나드는 시민들이 풍성한 예술의 향연을 흠뻑 누리시고, 의미 있는 가을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작품과 공연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장 인사말

조용익
부천시장

국가지정 문화도시인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가 협력하여 준비한 '2023 부평·부천 아트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부평·부천아트페어는 "경계 없는 아름다움(Beauty without Boundaries)"이라는 주제로 지역적 경계와 정형화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지역의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도시는 지난해 부천 아트벙커B39에서 열린 제1회 2022 부천·부평아트페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처럼 개최되는 우리 아트페어가 두 도시의 시민이 교류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100여 명의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이 시민 여러분의 삶에 빛과 색을 더하고 깊은 감동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지역 예술인 양성과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트페어에 참여해 주신 두 지역 작가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문화공유지대 사업은 부평과 부천의 예술가 교류와 공통의 문화권 형성을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각예술이 중심이 된 아트페어로 협력해 왔으며, 올해로 2회를 맞아 부평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아트페어가 여러 화랑의 연합으로 미술품을 전시, 판매한다면 '부평·부천아트페어'는 도시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작품 소장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화이트큐브가 아닌 지역의 역사성이 담긴 오래된 유휴건물을 행사장으로 택했습니다. 화랑로에 위치한 협성원에서 열리는 부평·부천아트페어에는 화랑이 아닌 100명의 시각작가가 주인공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400여 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바랍니다.

부평과 부천의 앞 글자에서 딴 BB를 모티브로 사업의 의미를 부각시킨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지 않고, 함께 연대와 상생의 문화를 일궈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예술분야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입니다.

문화공유지대 사업 초반에 모인 예술가들의 바람대로 예술가 교류의 자리와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클래스, 퍼포먼스, 음악공연, 스탬프투어는 지역 미술계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0
ARTIST
50
ARTIST
100
ARTIST

2023 BUPYEONG BUCHE
부평 ·
BEAUTY WITHOUT
아트
10.25.수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김재은
부평부천아트페어 디렉터

문화도시부평, 문화도시부천. 문화도시 임을 앞세우며 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기획들로 도시에 색을 입히는 중인, 비슷한 듯 다른 접경한 두 지역에서 '경계없음'을 주제로 함께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태초에 우린 모두 경계없음에서 출발한다. 세대, 장르, 매체 등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생겨난 단어와 구획들이 우리 서로를 하여금 경계를 만들고 구분을 짓게 만들기 시작했다. 우수한 세대도 열등한 세대도 없다. 고급장르와 저급장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매체에 절대적 우등 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도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세계엔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 뿐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포용과 인정보다는 편가르기, 급나누기,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며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는가? 서로에 대한 경계를 거두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해보자. 다양한 세대, 장르, 매체가 담긴 이 아트페어는 다양한 가치를 담은 작가들의 이야기들로 꽃피우며 아트페어를 넘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적 축제로의 확장을 지향한다.

2023 부평부천아트페어는 도시별 50명씩 100명의 시각작가가 모여 평면, 입체,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2층~4층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은 방마다 다양한 주제와 컨셉으로 작가들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연이어 관람하는 듯한 영감을 준다. 2층, 3층에서 각 방들 마다 제시된 주제와 컨셉은 4층에서 비로소 조화를 이루며 '경계없는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또한 페어에서는 두 도시의 다양한 시각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작품들 외에도 스탬프투어, 음악공연, 퍼포먼스, 이벤트를 마련하여 도심 속 예술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준비된다. 페어는 화이트큐브가 아닌 지역의 오래된 유휴건물인 협성원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예술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점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제시를 하려는 부평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부평에서 처음 열리는 아트페어로서 시민들의 예술향유와 대중적인 예술 판매 구조를 제시하는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대한다.

2023 부평부천아트페어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더 다양한 아름다움의 희열이 꽃피울 것이다.

2023 BBAF

2023

BUPYEONG

BUCHEON

ART FAIR

ARTIST

1

강전희

1

'아름다운 색채와 빛이 어우러지는 로맨틱함'

추상적인 공간과 구상적인 공간을 혼합하여 아름다운 색채와 빛의 느낌을 통해 3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색채와 풍요로운 느낌의 페인팅으로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

1 *공간*
2023, Acrylic on canvas, 50X50cm

2 *공간*
2023, Acrylic on canvas, 47X54cm

1

2

2023 BBAF

강해운

2

'따뜻하고 서정적인 추억을 공유하는 문인화 섬유아트'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노래하듯 읊조리고 싶다. 따뜻하고 서정적인 추억을 공유하며 등을 다독이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업을 소재로 하며, 연그림과 감을 대표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1 *당신*
fiber ray, textiledye, 50X35cm

2 *푸르른 날에 외출*
fiber ray, textiledye, acrvilic paint, 50X35cm

3 *회상*
fiber ray, textiledye, stone, acrvlic paint, 50X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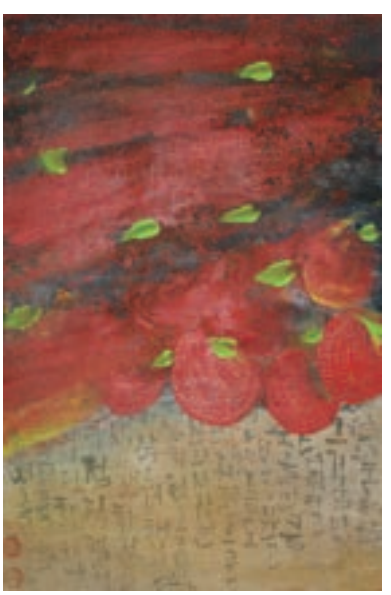
4 *꿈틀거리는 마음*
fiber ray, textiledye, acrvilic paint, 50X50cm

5 *사계절의 꿈*
fiber ray, textiledye, 90X50cm

1

2

3



4

5

고주안

3

'사회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다.'

인간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과 생존 방식에 관심을 둔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사회를 분열하는 젠더 갈등, 사회의 존속을 걱정케 하는 저출산 문제 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의 생존 경쟁과 같은 단순 자연 현상인 것인지 생각해 보며 작업에 녹여 낸다.

1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2019, Acrylic and Oil, Paint on canvas, 60.7X60.7cm

2 *단지 다를뿐이야.*
2017, Acrylic and oil, car paint on canvas, 116X91cm

3 *다각도의 이야기들*
2018, Acrylic and Oil, Paint on canvas, 53X45.5cm

4 *삶의 지속성.*
2018, Acrylic and Oil, Paint on canvas, 53X45.5cm

5 *너 아니면 나.*
2018, Acrylic and Oil, Paint on canvas, 53X45.5cm

1

2

3

4

5

공지선

4

'시대의 자화상'

사회가 분류하는 통계에 묶여 이용되고 소멸하는 생들의 조소 받는 저항에 대하여, 언급없는 영향에 대하여, 순응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에 놓인 개인의 감정을 표정을 통해 마주해보고자 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보이나 결국엔 고통과 삶 그리고 소멸이란 순차적 이미지로 묶여 결국에는 이야기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비어버린 삶의 의미를 비판하며 역설적이게도 삶(개인)을 예찬한다. 이는 현시대에 존재하는 개인의 자화상이자 가장 숭고하길 원했던 폐기물이며 그 목적을 다 한 지속적 허망이다.

1 *line[MNK20880]*
2019, 생활방수패브릭에 디지털 인쇄, 장스탠드 조명,
155X40X40cm

2 *#나 (hashtag me)*
2022, oil on canvas,
20X20cm

3 *#나 (hashtag me)*
2022, oil on canvas,
30X30cm

4 *배 부른 소리*
2019, oil on canvas,
90.9X72.7cm

1

2

3

2023 BBAF

4

곽동희

5

'꿈꾸는 고양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도시의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그 고독과 삶의 괴로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들도 우리들처럼 꿈을 꾸고 있을까?

내 꿈에서 우연히 나타난 고양이 꿈속의 고양이는 너무도 깨끗한 흰색의 털을 자랑하며,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고양이를 통해 내 작품에서 꿈꾸는 고양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도시의 방랑객인 고양이는 길거리의 어두움 이지만 제 작품에서는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꿈꾸는 고양이 입니다. 화려한 꽃밭과 도시를 거닐며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고양이들을 그려가면서 내 작품과 같은 꿈을 꾸는 고양이들을 만나기를 상상해 봅니다.

1

1 *꿈꾸는 고양이*
캔버스에 아크릴, 50X50cm

2 *꿈꾸는 고양이*
캔버스에 아크릴, 72X72cm

3 *꿈꾸는 고양이*
캔버스에 아크릴, 50X50cm

2

3

권민주

6

'한 터치 한 터치 쌓아가는 나의 신'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들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새롭게 정의하고 하나의 종교, 신처럼 다룬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과 나이, 성별, 인종 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낸다. 최근에는 스스로를 파고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린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겪어온 어머니와의 경험,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오래된 집기들 그리고 염원을 담아 쌓아 올린 돌탑이라는 물체에 연결점을 두고, 실제 존재하는 돌탑을 재시각화한다. 이것들은 나에게 쉽게 사라질까 두려운, 보이지 않는 정성과 마음들에 대한 기록이자 증명으로 일종의 염원을 담아내는 사리의 결정체로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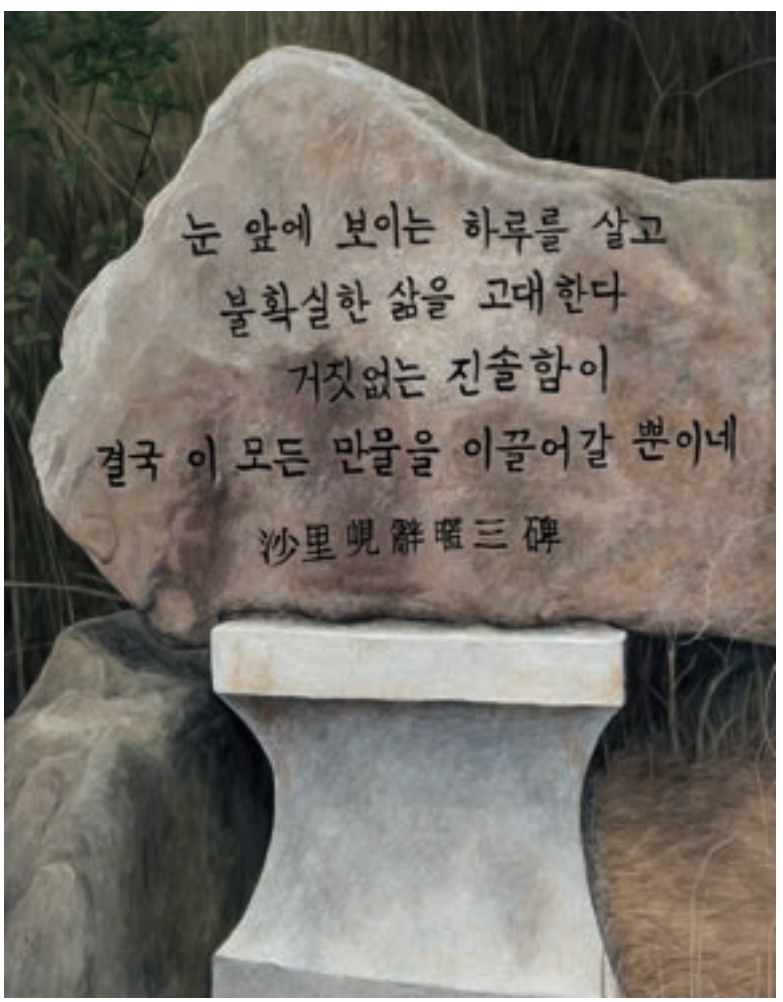
1 *沙里峴辭暱三碑(사리현사일삼비); 사리현의 사사로운 세 말씀*
2021, oil on canvas, 116.8X91cm

2 *강화돌탑1*
2022, oil on canvas, 65.5X1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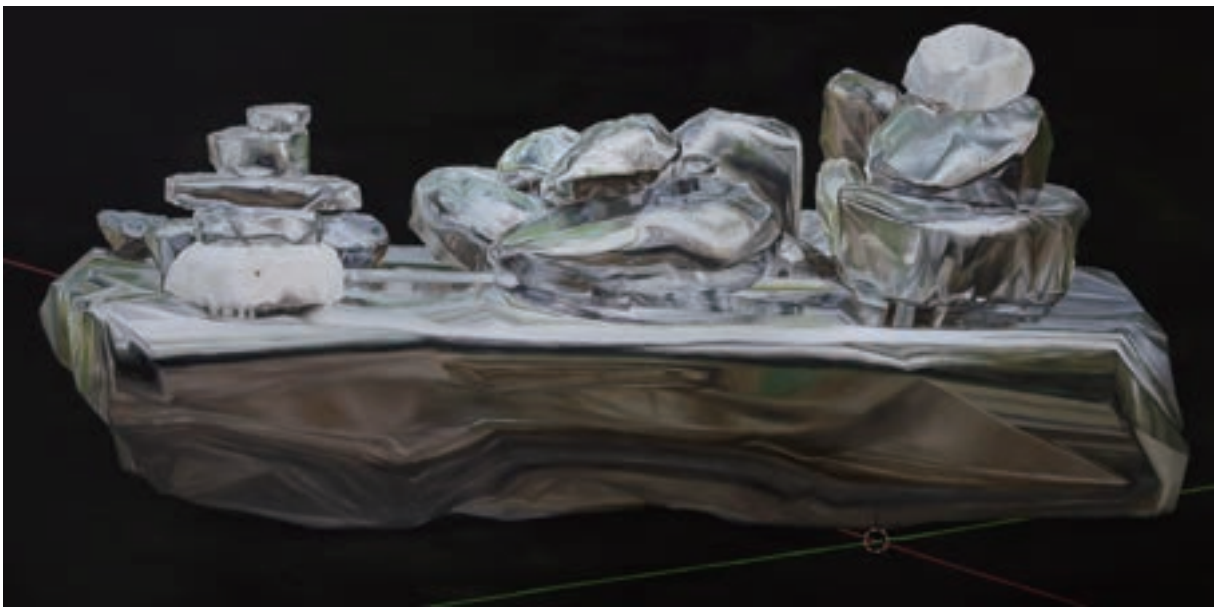
3 *강화돌♡탑3*
2023, oil on canvas, 19.8X18.5cm

4 *강화돌탑2*
2023, oil on canvas, 31.8X40.9cm

5 *보물1*
2023, oil on canvas, 40.9X31.8cm



1



2

3

4

5

권순금

7

'다양한 꽃들과 직접 마주한 자연의 풍경들을 담아낸다. '

1 양귀비
화선지에 물감, 46X53cm

2 거제도의 추억
화선지에 물감, 46X53cm

3 장미의 화원
화선지에 물감, 52X66cm

4 양귀비
화선지에 물감, 45X53cm

1

2

3

4

김규학

8

'동네 어귀를 돌며 만나는 어느 시절을 그리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다분히 서정적이면서 목가적이다. 한적한 시골의 어느 들판이나 숲길, 산등성이 언덕배기에 허름한 동네, 허물어질 것 같은 기와 지붕과 담벼락 위에 하얀 뭉게구름이 걸려있는 동네 어귀를 돌아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간직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돌이켜 보길 바란다.

1 *바람과 빛-152*
2021, Oil on canvas, 73x91cm

2 *바람과 빛-127*
2023, Oil on canvas, 85x123cm

3 *바람과 빛-114*
2022, Oil on canvas, 85x85cm

4 *바람과 빛-135*
2020, Oil on canvas 50x65cm

1

2

3

4

김동균

9

'아름다움의 탐구는 일종의 결투,
예술가는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며 패하고 마는.'

작가가 좋아하는 보들레르의 글귀이다. 원하는 것을 향해 끙끙 거리다 어떤 부분에선 이기고, 어떤 부분에선 져가면서 한 점 한 점을 작업해나간다. 작업은 매혹적인 것들을 붙들기 위한 분투이자 시도이다.

1 *paper man*
2020, marker&pen
&watercolor on paper,
20.8cmX17.9cm

2 *삼신기선 시리즈1_始作*
삼신기선 주식회사 인천 출범
2022, marker&pen on paper
7.8cmX10.5cm

3 *삼신기선 시리즈2_이미지연구*
삼신기선과 당시시대
2022,marker&pen on paper
10.5cmX15.5cm

4-7 *삼신기선 시리즈3-6*
2022, pen&marker
&watercolor on paper
7.8cmX10.5cm

1

2

3

4

5

6

7

8 *삼신기선 시리즈7_救助*
난파목선 선원들 구조하는 제삼강화환
2022, pen&marker on paper
7.8cmx10.5cm

9 *삼신기선 시리즈8_강화호의 항해*
2022,marker&pen on paper
10.5cmx15.5cm

10 *삼신기선 시리즈9_어느 도선사의*
초상화 - 유항렬 선장
2022, marker&pen on paper
10.5cmx15.5cm

11 *삼신기선 시리즈10_撮影*
선착장에서 사진촬영 중인 유항렬 선장
2022, pen&marker on paper
7.8cmx10.5cm

8

9

10
11

김땡땡

10

'AI로 감정의 파편들을 동시에 드러내다.'

감정의 중첩이라는 주제로 미래와 현재가 오버랩된 Sci-Fi 세계관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방식으로 인간-기술의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나간다.

1 *Superstring theory*
Limited edition 1/1
2023,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팅
60X42cm

2 *Stairs to the heaven*
Limited edition 1/2
2023,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팅
60X60cm

3 *Color of the sunset1*
Limited edition 1/1
2023,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팅
60X42cm

4 *Color of the sunset2*
Limited edition 1/1
2023,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팅
60X42cm

1

2

3

4

김보경

11

'한지로 만들어내는 생의 축적.'

거시적으로는 '윤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미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현재의 '생'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윤회를 통한 생의 축적물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의 집합체이다. 이 공식을 윤회에 적용한다면 '현생의 나'는 억겁의 과거의 축적물이며 지금도 역시 생의 축적은 이뤄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한지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1 *잡았다!*
2023, 장지에 채색과 한지 콜라주, 130.3X162.2cm

2 *말의 초상*
2022, 장지에 채색과 한지 콜라주, 80.3X80.3cm

3 *달리는 소*
2023, 장지에 채색과 한지 콜라주, 116.8X72.7cm

4 *추목(秋木)*
2023, 장지에 채색과 한지 콜라주, 116.8X91.0cm

5 *하목(夏木)*
2023, 장지에 채색과 한지 콜라주, 116.8X91.0cm

1

2

3

4

5

김성호

12

'낭만의 부재: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세상'

정보의 홍수일까.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일까.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활고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청년층의 고독사, 유난히 많아진 듯한 대형 사고들. 어렸을 때는 몇 년 만에 일어날 법한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어느덧 낭만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된 것만 같다.

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본 세상을 향한 예술가의 시선을 그려낸다.

1 *Absence of romance n-18*
2023, Acrylic on Jangji
35X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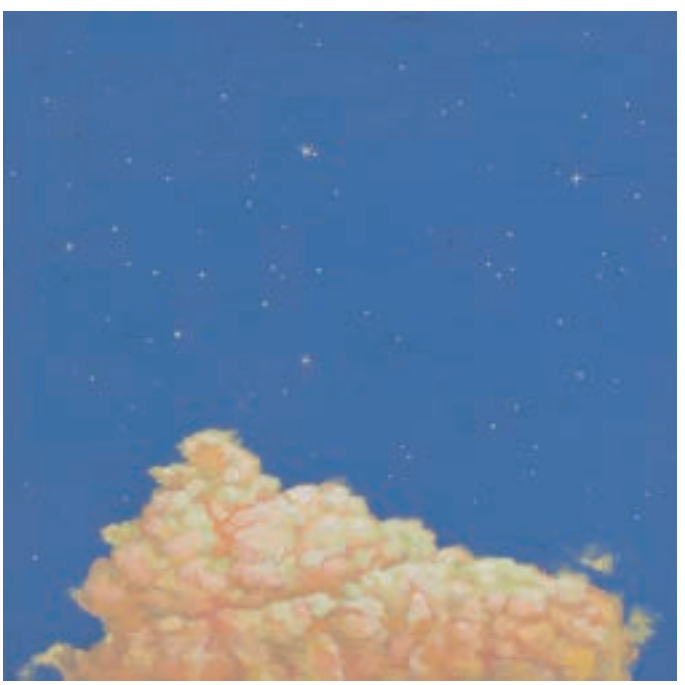
2 *Absence of romance n11*
2022, Acrylic on Jangji
40.7X31.7cm

3 *그랬던 시간*
2017, 장지에 젯소,아크릴과슈
60.6X72.7cm

4 *만담의 주제*
2020, 장지에 젯소, 채색
72.7X91cm

5 *That time*
2022, Acrylic on Jangji,
50X50cm

1



2

2

3

4

김영경

13

'화려한 이면에 숨어 있는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찍다.'

초저녁과 야간에 구조물이나 도시공간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여 오랜기간 야간 3부작 '천국보다 낯선', '블랜드 폴리스',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담아왔다. 초기엔 메트로폴리스의 낯선 풍경(천국보다 낯선)과 상징성이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블랜드 폴리스)을 화려한 불빛과 색감을 통해 도시의 욕망을 표현했고, 이번 '보이지 않는 도시들' 시리즈에서는 구도심의 거리와 시간이 묻어 있는 공간과 집 등에 집중하여, 화려한 이면에 숨어잇는 도시의 숨어있는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1 *보이지 않는 도시들K#15*
Archival pigment print, 32X32cm

2 *보이지 않는 도시들K#16*
Archival pigment print, 32X32cm

3 *보이지 않는 도시들K#01*
Archival pigment print, 32X32cm

4 *보이지 않는 도시들S#02*
Archival pigment print, 32X32cm

5 *보이지 않는 도시들S#04*
Archival pigment print, 32X32cm

6 *보이지 않는 도시들J#17*
Archival pigment print, 100X100cm

1

2

3 4

5 6

2023 BBAF

김윤아

14

'나의 안건이 당신의 안건이다.'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수치화 되거나 기호화 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개인의 감정이나 기록들에 대한 가치 문제를 작품으로 환기시킨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개인의 환경이나 선택 혹은 이를 둘러싼 양상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이 개인에게 모욕적일 때가 많은데, 이것들이 주제가 되어 작업한다.

1 *강한 심장*
fabric, wood, wallpaper, 53.2X75cm

2 *going home*
캔버스에 유채, 55X47.5cm

3 *baby, I think i'm lost*
캔버스에 유채, 47.5X55cm

4 *when we fell in love*
캔버스에 유채, 67X55cm

1

2

3

4

김준범

15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다.'

최근 사랑이라는 주제가 더 확장되어 가까운 주변인들을 그린다. 사랑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서사대신 그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스토리텔링보다 마음에 와닿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1 *MAMA*
2022, Acrylic on Canvas, 65X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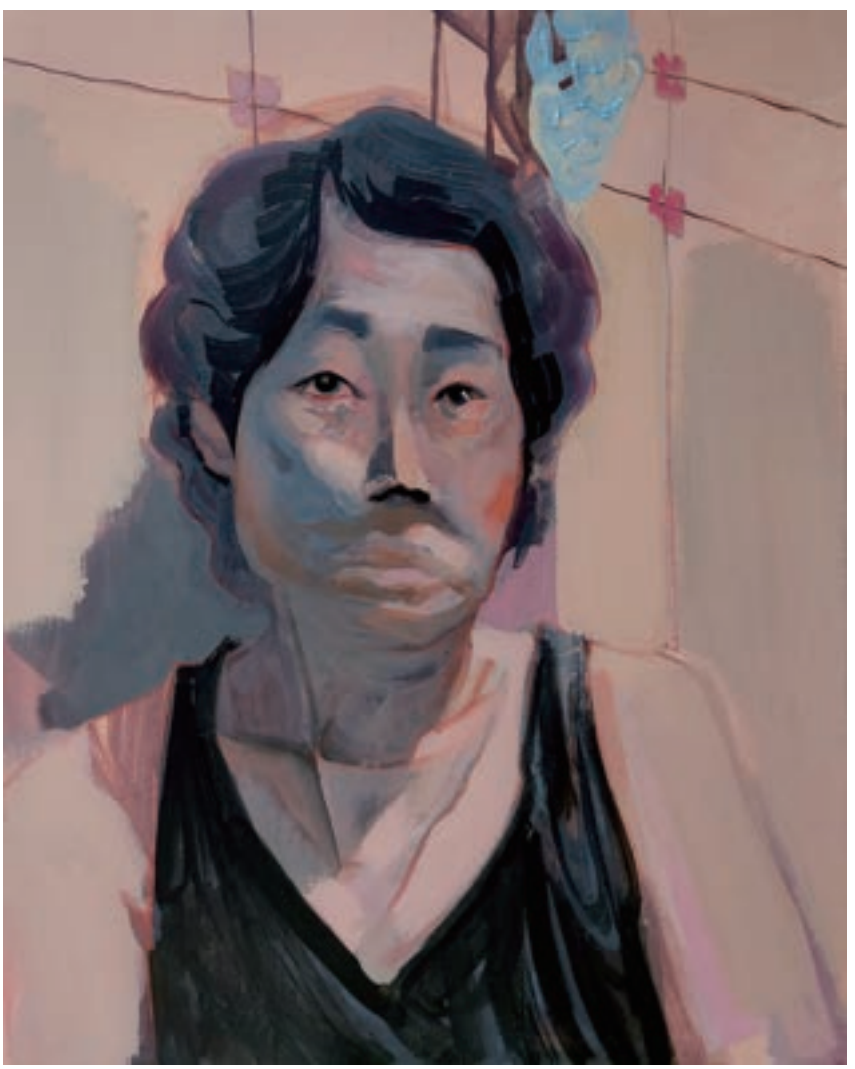
2 *MAMA*
2022, Acrylic on Canvas, 53X46cm

3 *Memory*
2022, Acrylic on Canvas, 72.5X60.5cm

4 *Memory*
2023, Acrylic on Canvas, 45.5X53cm

5 *Memory*
2022, Acrylic on Canvas, 53X45.5cm

1



2

3

4

5

김지윤

16

'평범한 일상에서의 사소한 자극들을 박제하여 시각적으로 기록한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기록한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사소한 시각적 자극들, 낯선 지점을 포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시간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흔적을 남기고,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서 시작되었으되, 이제는 나를 벗어나 떠도는 것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한데 모여 또 다른 단서를 알려주기도 한다. 작은 것들이 모여 예기치 못하게 확장되는 지점을 좇는다.

1 *흔적의 정원 02*
gouache on woodboard, 20X20cm

2 *흔적의 정원 05*
gouache on woodboard, 20X20cm

3 *꽃무늬 벽지*
gouache on woodboard, 72.7X53cm

1

2

3

김찬란

17

'곤충의 특성이 흥미로워 여러 곤충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다가 그중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개미에게 관심이 갔다.'

'바쁘게 살아내는 개미를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커다란 우주에선 인간 또한 티끌만 한 존재이기에 더 고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개미처럼 보일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개미들과 그들의 일상을 만들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자 했다.

1 개미,Shiva
황동, 14k 도금, 9X5X17cm

2 개미,피에타
황동, 14k 도금, 8X5X11cm

3 반가사유개미
황동, 14k 도금, 9X5X13cm

4 원반던지는개미
황동, 14k 도금, 7X5X15cm

5 사탕전쟁
황동, 14k 도금, 폴리스티렌, 아크릴, 수지, 3D 프린팅
30X30X80cm

1 2

3 4

5

김탁

18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려 노력한다.'

사진을 찍고 용접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억하고 잇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발음과 맥락상 '잇는'이 '잊는'으로 들리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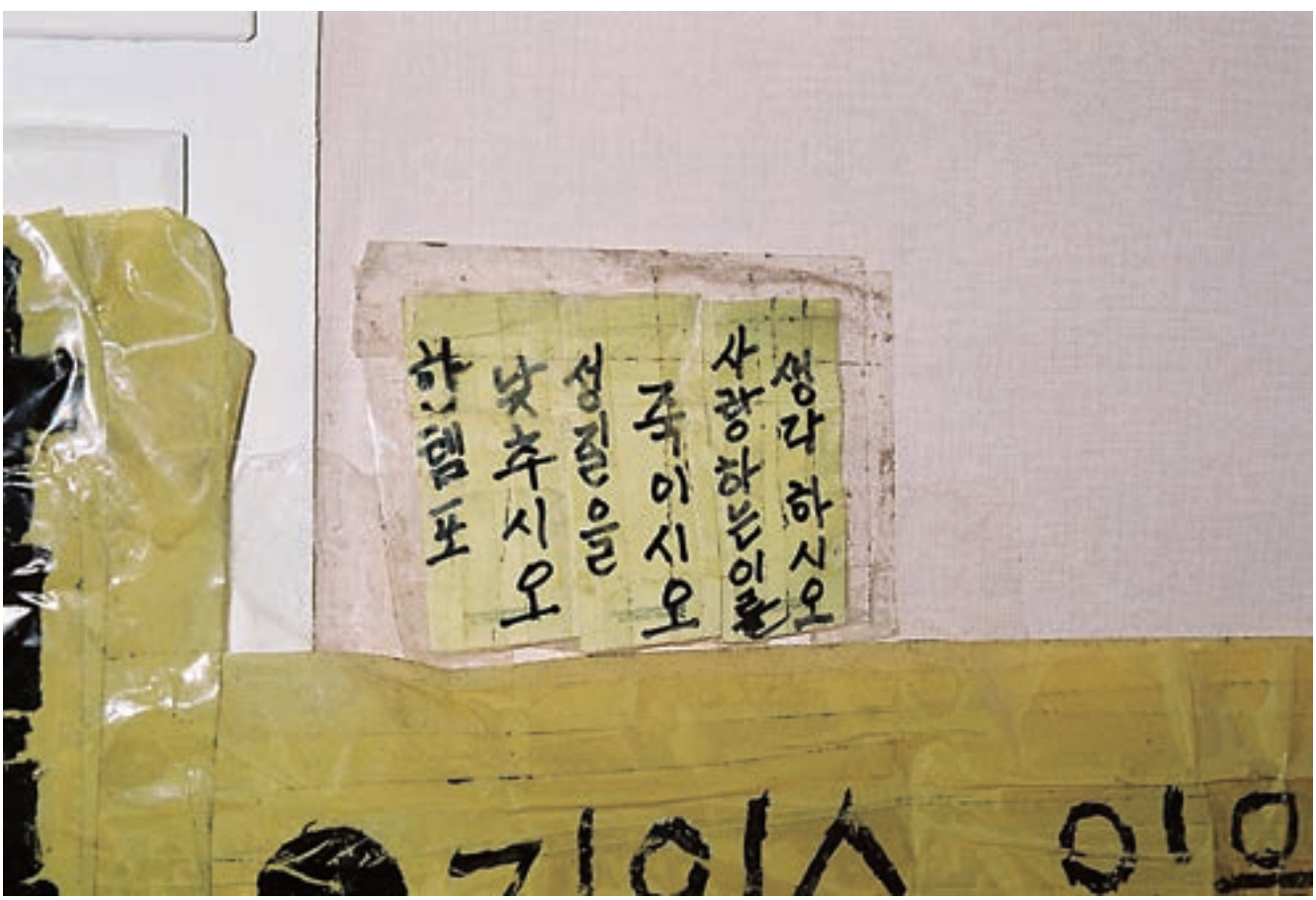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상에 던진 질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마음을 문질러 줄 것을 믿고 있다. 믿으며 살고 있다.

1 *사랑하는이를 죽이시오*
2018, 29.7X42cm

2 *Be Happy,sweet dream,봄*
2021, 59.4X84.1cm

3 *소원성취*
2023, 59.4X84.1cm

1



2

3

김탄소

19

'가상세계와 현실의 경계선 속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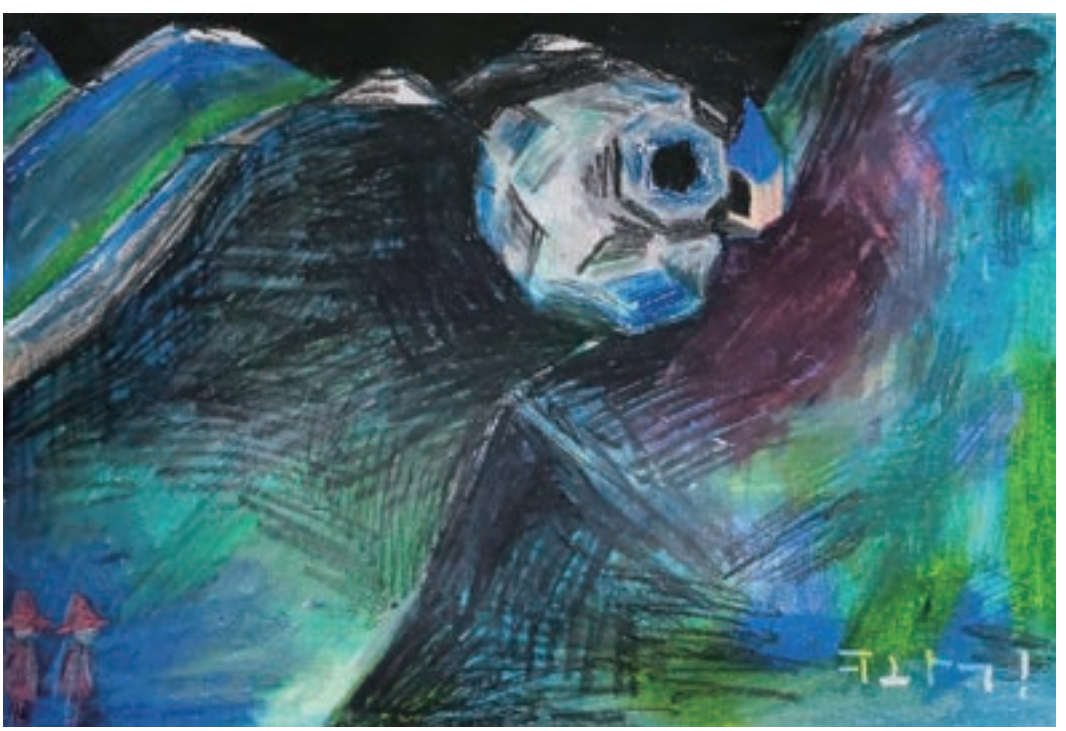
가상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과 사회문제를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해 다양한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오일 파스텔, 수채화 물감, 콘테 등의 아날로그의 재료와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1 *기억 속 행방불명*
2016, 오일파스텔, 종이,
35X23cm

2 *세 사람*
2018, 색연필, 콩테, 크레용,
수채화물감, 종이,
18.5X12.2cm

3 *죽어가는 프레데터(10)*
2017, 오일파스텔, 종이,
34.5X24.5cm

1



2

3

김태균

20

'지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특성을 시각 예술로 표현한다.'

나와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공간, 인류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과 역사적 에피소드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다양한 소재와 함께 시각 예술의 언어로 표현한다.

1 *What do you want me to do*
아크릴, ABS, 나무,
120X110X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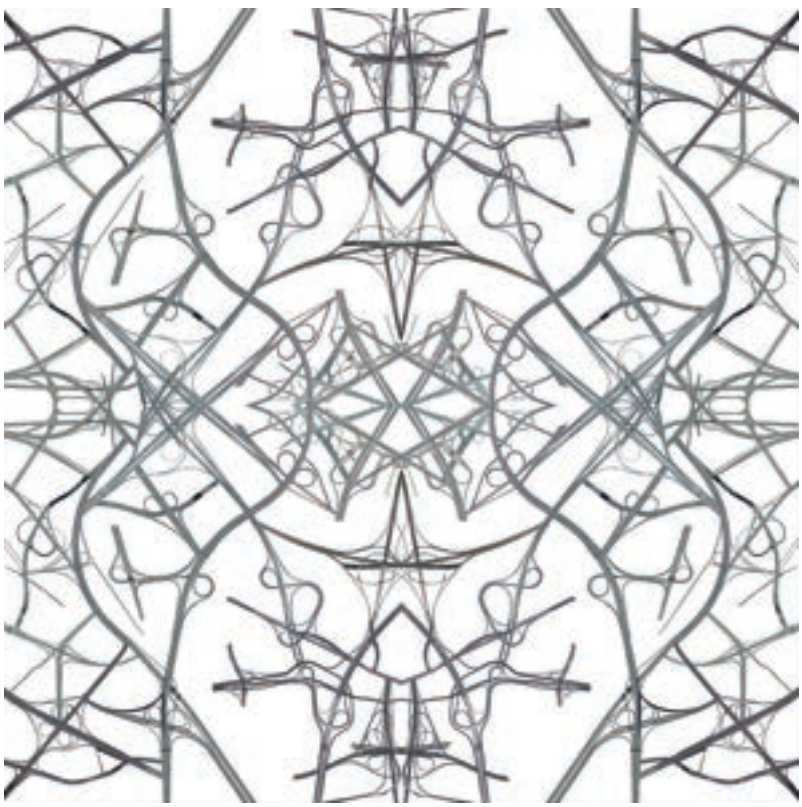
2 *Ornament #2*
디지털 프린트, 디아섹,
70X70cm

3 *Ornament #3-2*
디지털 프린트, 디아섹,
100X100cm

1

2

3



김태덕

21

'시각예술의 장르적 경계선에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시각예술의 유희성과 동양 불교철학의 '공(空) 사상', 언어가 지시하고 한정하는 사물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짧은 감상 시간을 보며 능동적인 전시 참여와 흥미 유발 방법을 고민하여, 장난감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과 워크숍을 시작했으며 관객들과 전시장 벽에 낙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을 어려워하는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객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1 *implicitly explicit - lighthouse 02*
실리콘 무드등과 스테이플,
25X16X16cm

2 *implicitly explicit - lighthouse03*
실리콘 무드등과 스테이플,
18X12X12cm

3 *implicitly explicit - stabled spacet 05e*
FRP와 알루미늄 봉
205X90X90cm

4 *implicitly explicit - stabled space 07*
플라스틱 피규어와 스테이플
76X29X7cm

5 *implicitly explicit - stabled space 06*
플라스틱 피규어와 스테이플
95X26X19cm

3

2023 BEAR

4

5

김혜란

22

'인생의 가장 찬란한 20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보았다.'

나의 암 진단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의 단어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런 카오스를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다.

작품들은 나에게 위로와 이해의 과정인 동시에 관람객에게는 깊은 사고와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1 *chaos #47*
2010, 캔버스에 오일,
120X120cm

2 *chaos #44*
2010, 캔버스에 오일,
180X135.5cm

3 *chaos #51*
2023, 캔버스에 오일,
30X30cm

4 *the day 2006.05.02-2*
2011, 캔버스에 오일,
162.2X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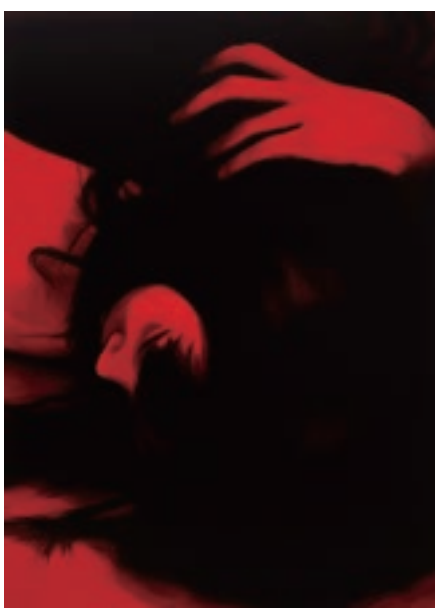
5 *to permeate #1*
2011, 캔버스에 오일,
89.4X130.3cm

1

2

3

4



5

김호경

23

'자연스럽고 우연한 순간을 캔버스에 옮기다.'

우연하게 재밌다는 감정이 드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사진을 다시 감각하여 붓질로 그 감정을 직관적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작업을 소개할 때 박제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순간의 느꼈던 기억들이 보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한다.

1 *visual sound series 6*
2022, 캔버스에 오일, 18X24cm

2 *visual sound series 4*
2022, 캔버스에 오일, 18X24cm

3 *230304-0327*
2023, 캔버스에 오일, 89X116cm

4 *221205-0112*
2022, 캔버스에 오일, 130X162cm

1 2

3

4

노찬균

24

'Combination Vs Deformation.'

관찰된 장면을 기록하고 조합하며 작업을 한다. 조각, 회화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이미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온전히 만들기와 그리기에 집중하려 한다.

1 *ROHCHUI*
2023,스티로폼,레진,철사,아크릴물감 42X31X6cm

2 *IMG_3627*
2023, MDF,레진,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펜,스프레이, 42X36X17cm

3 *거북목에 일자목*
2023,소송각재,한지,합판,아크릴물감,스프레이, 12.1X80X13cm

1

2

3

2023 BBAF

도은 김기곤

25

'그냥 끝까지 하는 것이다.'

화면에 구조적 아름다움이 담기거나 붓 선의 힘이 생기있고 특히나 자연스러운 그림을 추구한다. 추상 작업을 즐겨하지만 구상이든 풍경이든 얽매이지 않는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수도자의 공부처럼 나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양심으로 바로 잡히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꾼다.

1 *@9 꿈잦아날다*
2023, 혼합재료, 39X54cm

2 *@7 꿈잦아날다*
2023, 혼합재료, 40X48cm

3 *@4 꿈잦아날다*
2022, 혼합재료, 46X62cm

1

2

2023 BBAF

3

델퍼 이성삼

26

'왜곡된 어릴 적 추억으로 표현하는 뒤틀린 현실.'

어릴 적 장난감에 대한 애착과 추억을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 새롭게 표현한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씁쓸한 맛이 느껴지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처럼 처음에 느껴지는 명랑함을 베이스로 나만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1 *매직 스네이크 큐브*
2021, Digital printing on canvas, 5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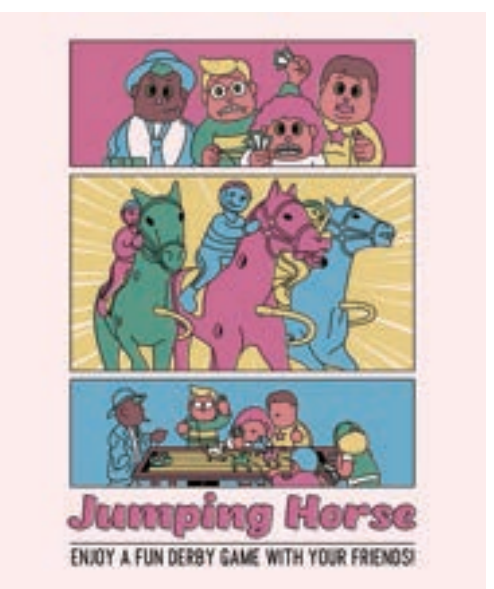
2 *펌프 정핑 말*
2020, Digital printing on canvas, 50X60cm

3 *친구가 필요해*
2023, Digital printing on canvas, 50X60cm

4 *추억*
2022, Digital printing on canvas, 50X60cm

1

2



2023 BBAF

3

4

I MISS WHEN I WAS YOUNG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to make you feel better when you feel alone.

미람 공정은

27

'좋아하는 것들을 담은 작은 상자를 표현한다.'

'혼자 놀기'가 주제인 워터볼시리즈는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유리 볼 안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지만 온전히 혼자이기 싫은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1 *워터볼2-꽃잎이 휘날리는 밤에*
디지털 캔버스출력, 80X100cm

2 *워터볼3-별이 떨어지는 밤에*
디지털 캔버스출력, 80X100cm

3 *차를마시자1*
디지털 캔버스출력, 40X40cm

4 *차를마시자2*
디지털 캔버스출력, 40X40cm

1

2

3

4

미팡 김상숙

28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결정들로 관계가 형성된다.

눈이 큰 부엉이가 타자의 관점에 질문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 부엉이는 원래 무섭고 사나운 이미지이지만 좋은 것과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마음을 담아 꽃과 식물로 예쁘고 복스럽게 표현하였다.

1 *바라보다2201*
2022, Acrylic on canvas, 27X39cm

2 *숨바꼭질*
2023, Acrylic on canvas, 27X39cm

3 *바라보다2023*
2023, Acrylic on canvas, 72.7X60.6cm

1

2

3

2023 BBAF

박연희

29

'20대의 여행에 여지없이 늘 발길이 닿은 곳은 사찰이었다.'

작가가 되면 불교와 관련된 소재로 작업을 해보리라 생각했다. 보이는 것 너머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담아보겠다는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기에 수행자의 삶을 동경했다. 그래서 수행자의 공간을 소재로 하는 작업을 한다.

1 *무위자연#2*
2022, archival pigment print
60X40cm

2 *무념처2*
2016, archival pigment print
110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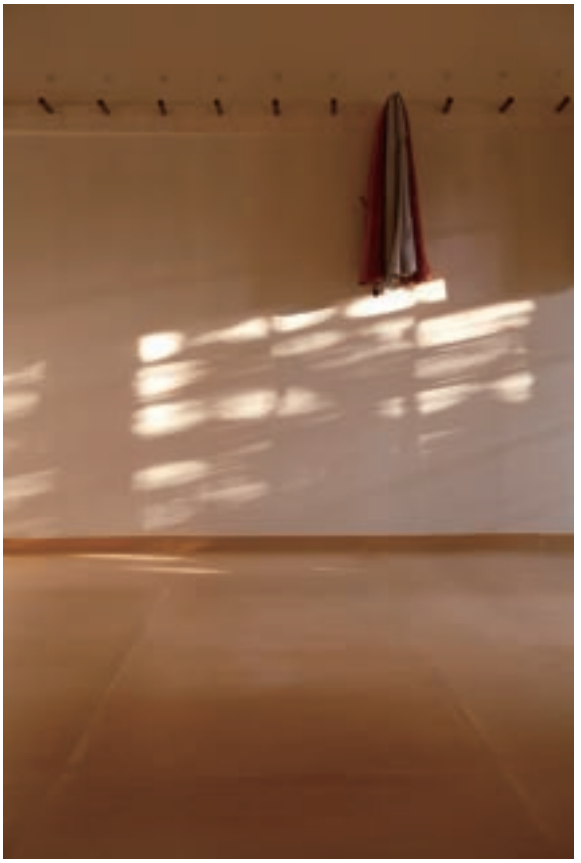
3 *무념처2*
2016, archival pigment print
80X60cm

4 *무념처*
2012, archival pigment print
110X80cm

5 *무념처2*
2016, archival pigment print
80X60cm

1

2



3

4

5

박영균

30

'사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학시절부터 생각한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풍경이나 인물 안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1 *순간의 풍경*
2023,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53X41cm

2 *초봄 사려니숲*
2023, 캔바스에 아크릴, 91X65cm

3 *보라색 사려니숲*
2023, 캔바스에 아크릴, 145X97cm

4 *보라색 사려니숲2*
2023, 캔바스에 아크릴, 145X97cm

1

2

2023 BBAF

박영환

31

'연 : 캔버스 속 공간의 창에 그린 연꽃.'
'우포 : 우포의 저녁 노을을 수채화로 그린 그림.'

1 연
oil on canvas, 50X42cm

2 우포
watercolor on paper, 42.5X52.5cm

1

2

2023 BBAF

박주연

32

'차가운 얼굴을 머금은 물결같은 위로.'

경험과 상상, 과거-현재-미래, 현실과 꿈으로 얽혀있는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정서를 탐구한다.

1 *그림자의 밤*
2015, Pigment Print, 18X13.5cm

2 *되돌아오는 결말 1-5*
2022, Pigment Print 15X20cm

3 *조용한 착각*
2022, Pigment Print, 30X50cm

1

2

3

박지애

33

'지나칠 수 없는 파편들을 감각하다.'

스스로를 둘러싼 사물, 공간, 삶의 제스쳐, 선택과 반복으로 지속되는 시간을 모사, 반복, 확장 등의 방법으로 평면 위에 늘어놓고 공간을 재배열 한다. 반복적인 리듬으로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것으로 감각하게 한다.

1 *5am*
2019, mixed media on canvas, 40.5X30.5cm

2 *Landscape with a green 1,2,3*
2019, ceramics, 30X30cm

3 *To sleep*
2021, mixed media on canvas, 116.7X90.8cm

4 *Fly but tilt*
2021 mixed media on wood panel and frame, 104.8 X 86.5 cm

1

2

3

4

2023 BBAF

박진이

34

'자연의 사연 속에서 쌓여가는 삶의 이야기.'

거주지를 옮기며 자연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내밀한 깊이를 보았다. 숭고한 자연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꽃과 풀 한 포기에 애정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바람에 스치는 꽃내음에서 다가올 계절을 기다릴 때면 소리 없이 축적되는 자연의 사연 속에 삶의 이야기 또한 쌓여 가고 있음을 느낀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자연은 무한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지닌다. 자연은 일상을 사유하는 매개가 되고 그 사유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1 *사랑하다*
2022, 캔버스위에 먹과 혼합재료, 45.5X33.4cm

2 *어머니의 꽃*
2022, 캔버스위에 먹과 혼합재료, 72.7X53cm

3 *바람이 분다*
2020, 캔버스위에 먹과 혼합재료, 72.7X72.7cm

4 *세상의 꽃*
2022, 캔버스위에 먹과 혼합재료, 80.3X80.3cm

1 2

3

4

박창환

35

'해체와 파괴를 통해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표현하다.'

인류의 진보는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한다. 진보와 새로움을 갈망하는 욕망의 충족은 기존의 것을 해체 파괴하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화면에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표현한다. 해체와 파괴 행위가 인간의 진보 욕망이면서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1 *Floating fragments 19-5. 2019, oil on canvas, 116.8X80.3cm*

2 *Floating fragments 19-30. 2019, oil on canvas, 116.8X80.5cm*

3 *Heap- office magazine, fall, winter. 2020, 잉크젯 프린트, 70X51cm*

4 *Heap- Another Man, Issue 28. Spring, Summer. 2021, 잉크젯 프린트, 100X76cm*

5 *더미(heap)12-1 2012, c-print, 70X53cm*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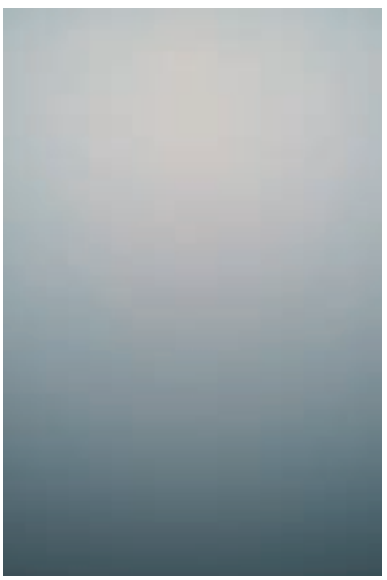
5

방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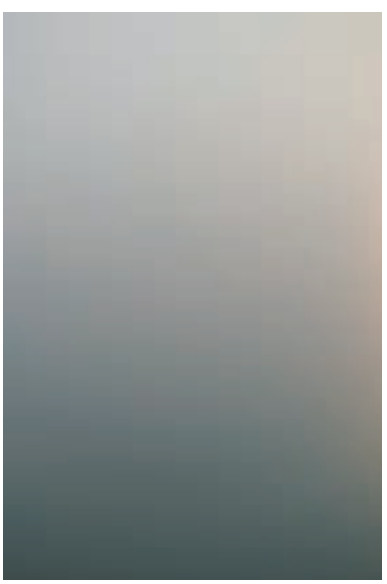
36

'靜中動 動中靜.'

나는 지향해야 하는 '앎'이란 환원적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말이나 글이 아닌 작품으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이유이다. 나는 많은 경우 '물'과 기하(幾何)를 통해 '수렴'의 사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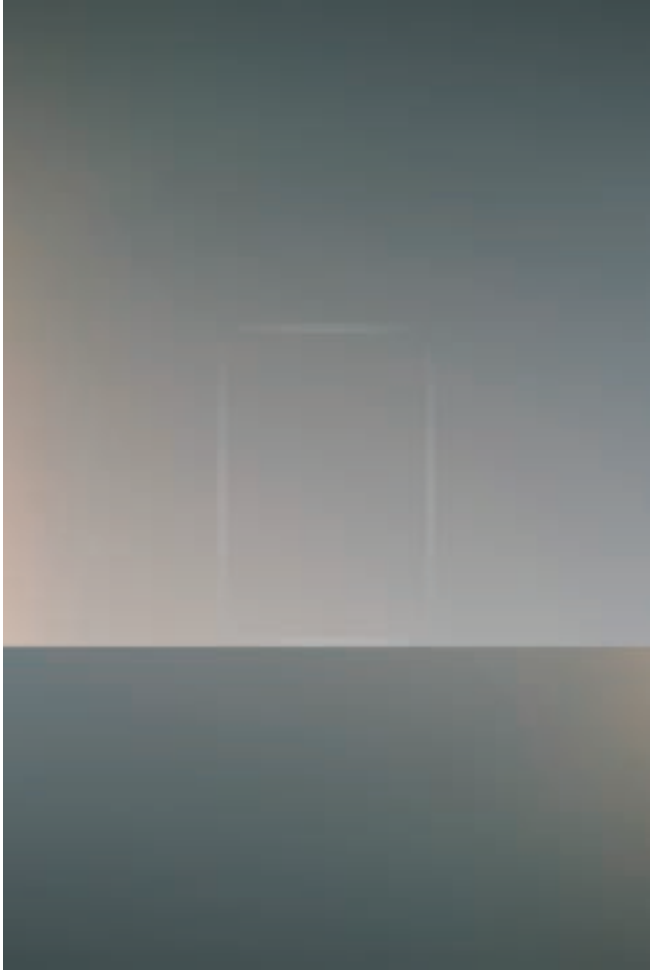
2

1 *응시, 물의 감각#1*
2023, 종이 위에 잉크젯프린트, 원목액자(앨더), 60.96x40.64cm

2 *응시, 물의 감각#2*
2023, 종이 위에 잉크젯프린트, 원목액자(앨더), 60.96x40.64cm

3 *응시, 원경의 지평#1*
2023, 종이 위에 잉크젯프린트, 원목액자(앨더), 114.3X76.2cm

4 *응시, 원경의 지평#2*
2023, 종이 위에 잉크젯프린트, 원목액자(앨더), 114.3X76.2cm



3

4

비비드 김연아

37

'나만의 휴식처, 계속되는 여정.'

식물에게 위로를 받는 동시에 그들의 생명력과 꿋꿋하게 그 자리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 여운을 바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초록빛의 조각을 하나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1 *Pieces of green 2023, 캔버스 무광, 42X59.4cm*

2 *Pieces of green 2023, 캔버스 무광, 42X59.4cm*

3 *Pieces of green 2022, 캔버스 무광, 42X59.4cm*

1

2

서경애

38

'예술의 정수를 향한 갈망'

작가는 이상주의자라서 예술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실제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무게를 실어내기 바란다. 달, 소녀, 나무, 바다, 장미를 좋아하여 주로 그리고, 여기에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더한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한다.

1 *인물2(The girl with flowers) 2022, oil on canvas, 33.4X24.2cm*

2 *장미(Red roses) 2015, oil on canvas, 72.7X60.6cm*

3 *붉은옷 (The girl within red dress) 2015, oil on canvas, 72.7X60.6cm*

1

2

2023 BBAF

3

서경희

39

'혼돈 속에서 교묘하게 질서를 찾아가는 놀이.'

병약했던 유년시절 유일한 친구는 회화도구였다. 그 시절로 회귀한 듯 놀이를 통해 미술작업을 상상한다. 작업을 하다 우연히 만나는 마음의 형상이 매개체가 되어, 붓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물감을 유희적으로 다뤄 선을 면으로 확장시킨다.

작업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은 콜라주에 중첩하거나 지우면서 내면의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동시에 드러낸다. 어떤 형상도 기계처럼 똑같아지지 않고 한 곳에 매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표현한다.

1 *문을 여는 봄의 소나타*
2020, Acrylic on canvas, Oil pastel, collage, 45.5X53cm

2 *세레나데 2중주 1*
2020, Acrylic on canvas, Oil pastel, collage, 53X41cm

3 *겨울나그네*
2020, Acrylic on canvas, Oil pastel, collage, 53X45.5cm

4 *prettiest reasure1*
2020, Acrylic on canvas, Oil pastel, 65X91cm

5 *푸른 새싹이 있는 다양체*
2023, Acrylic on canvas, Mixed midea, 53X45.5cm

1

2

3

4

5

서도이

40

'초고밀도 중성자별의 탄생.'

일종의 역할놀이를 통해 어떠한 편견도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무구한 세계를 구축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 죽음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초고밀도의 중성자별로 다시 태어나는 신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자전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잉여현실은 작품으로 구현됨으로써 실제 존재하며 몰입 가능한 상태가 된다. 상상은 증식되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통해 누구나 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1

1 *영원을 위한 튤리파*
2023, oil on canvas, 45.5X45.5cm

2 *Supernova III*
2023, oil on canvas, 22X22cm

3 *Supernova II*
2023, oil on canvas, 22X22cm

4 *Supernova I*
2023, oil on canvas, 22X22cm

2

3

4

서민지

41

'돌은 자연을 닮은 사람의 삶이다.'

나에게는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나아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돌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보면 각기 다른 모양과 무늬를 갖고 있다. 돌이 여러 풍파를 거치고 부딪히며 갖춘 모양은 여러 사람들 속에 부딪히고 어울려 사는 우리와 닮아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순리처럼 생명을 가진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작업한다.

1 *일기록02*
2022, 비단에 혼합재료,
90.5X60cm

2 *이운利運_01*
2023, 비단에 혼합재료,
38X38cm

3 *이운利運_02*
2023, 비단에 혼합재료,
38X38cm

4 *현現_03*
2022, 비단에 혼합재료,
21X29cm

1

2

3

4

2023 BBAF

소수빈

42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래의 신-생태계: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물 이미지의 재조합을 기초로 식물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 미래의 공존시스템을 논의한다. 식물의 인공적 변이를 가능하도록 상상하고 기술복제 시대의 환경적 기계진화에 대한 질문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1 *Tree 6*
2021, Beads, Oil on canvas, 116X72cm

2 *Specimen 21*
2020, Oil on canvas, 90X60cm

3 *Specimen 11*
2020, Beads, Oil on canvas, 65X45cm

4 *Specimen 12*
2020, Beads, Oil on canvas, 65X45cm

5 *Tree 5*
2021, Beads, Oil on canvas, 90X60cm

1

2

3

4

5

소요김 김주량

43

'산책하듯 흐르는 생각을 표현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한걸음씩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간다. 작품을 통해 거친 현실보다는 달달한 이상을 꿈꾸고 모든 이들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1 *Secret Garden 1*
2023, Acylic on canvas, 72.7X60.6cm

2 *Secret Garden 2*
2022, Acrylic on canvas, 53X46cm

3 *About time*
2023, Acrylic Mixedmedia, 60X60cm

1

2

3

손민석

44

'미묘한 색채를 통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 연구.'

일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그림으로 연구하고 있다. 천천히 어떤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의 색채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낸다.

1 *소파 위의 정물*
2021, oil on canvas, 72.7X53cm

2 *불꽃길*
2021, oil on canvas, 53X72.7cm

3 *묽은 아침*
2023, oil on canvas, 32X41cm

1

2

3

2023 BBAF

송종화

45

'사람을 표현하는 자연의 회화.'

나무와 사람은 씨가 뿌려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이 둘은 성장해 나가면서 서식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에서의 나무는 작가의 안에서 감정이라는 양분을 얻으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 이러한 내부환경을 투시(透視) 하여 캔버스 위에 기록한다.

1 *푸숑푸숑 나무*
2023, 장지에 혼합재료,
45X45cm

2 *Kitsch tree*
2023,장지에 혼합재료,
20X20cm

3 *royal tree*
2023, 장지에 혼합재료,
40X40cm

4 *Tropical tree*
2023, 장지에 혼합재료,
40X40cm

1

2

3

4

송차영

46

'조우하는 평범함 속 찰나의 순간을 직조하다.'

여행 중에 우연히 채집된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으로 작업한다.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들과 덧없이 스쳐가는 풍경들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한 장소에서 어떤 힘이 요동칠 때 터져 나오는 떨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닐까?

조우한 평범한 풍경 속에 강한 인상에 사로잡히는 찰나의 순간, 비로소 그 풍경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 평범했던 풍경은 어느덧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면서 심리적 미로가 되어 비실재적인 공간이 되어 갈 것이다.

1 *풍경의 시선-스러지다 2022, 종이에 펜과 수채화, 28X35.6cm*

2 *우연히 마주친-the well 2019, 종이에 연필과 펜, 30X90cm*

3 *우연히 마주친-밤의 문1 2019, 종이에 연필과 펜, 32X42.5cm*

4 *우연히 마주친-solace 2019,종이에 연필과 펜, 24X32cm*

5 *우연히 마주친- 그림자 도시 2018, pen on paper, 24X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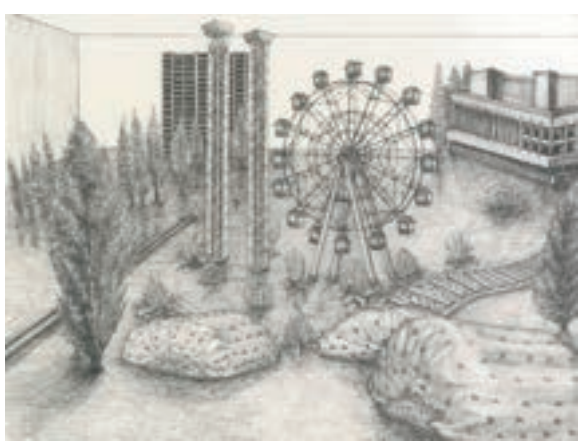
1

2

3

4

5



신은정

47

'꿈의 분석을 통해 공감과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꿈의 분석. 구체적으론 태몽과 사후 세계에 집중하여 무의식, 꿈, 환상 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무의식 세계인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시각화하였다. 최근에는 꿈의 기록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여 변형 캔버스를 통해 주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1 <시작, 끝>
2022, 장지에 분채,
52X30cm

2 탄생기 I 코브라에서
2022, mixed media,
92X92cm

3 탄생기 II 공작으로
2022, mixed media,
150X85.3cm

4 중의분석 III
2023, mixed media,
47X47cm

5 모성애 II
2021, 순지에 분채,
50X50cm

1

2

3

4

신지우

48

'야옹.'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었다.
나는 누구인지 몰라 헤매었다.

우연히 마주친 행복이나 행운을 보며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다.

우리는 만나 서서히 스미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짙게 배어있는
그리고 이내 반드시.

당신의 하루는 늘
다정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작업을 시작하였다.

1 *낮잠*
2023, Oil pastel on wood panel, 27.3X34.8cm

2 *두려움에 맞서는 법1*
2023, Oil pastel on wood panel, 27.3X34.8cm

3 *두려움에 맞서는 법2*
2023, Oil pastel on wood panel, 60.6X72.7cm

1

2

3

약과

49

'담백하게 삶과 희망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

'호프펑크: 낙관주의, 온화함, 친절함 그리고 협력 등을 보여주는 소실 및 예술 형식'

더 많은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작품세계는 장난과 웃음이 주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담백하게 삶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작품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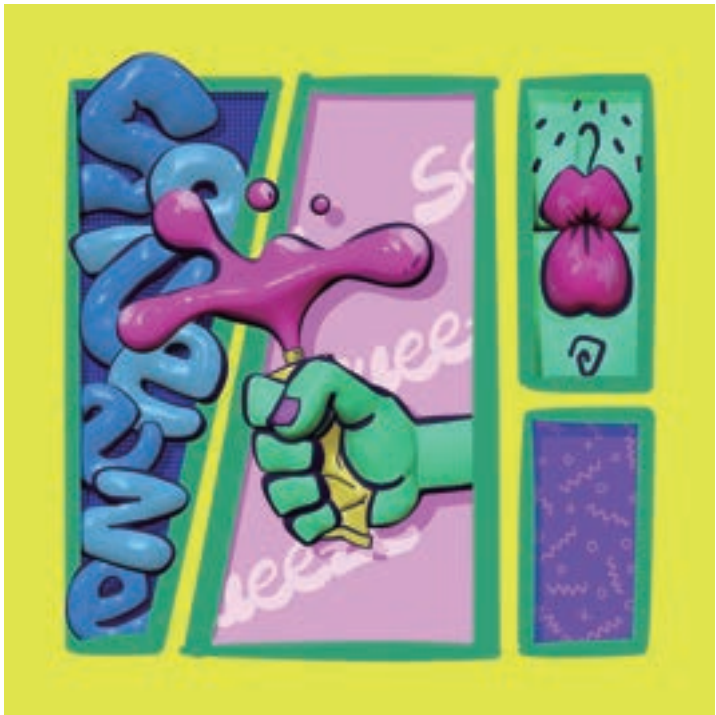
1 *ALOLLAMA's Spooky Stroll(30editions) 2022, 디지털 판화, 50.8X76.2cm*

2 *The Color Squeeze#01 2022,혼합재료, 50X50cm*

3 *Piece of joy 2023, 캠퍼스 혼합재료, 72.7X90.9cm*

1

2



3

2023 BBAF

양지훈

50

'환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풍경을 화폭에 담다.'

작품은 내적 판타지로의 여행과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풍경이라는 내용에서 출발한다. '환상' 그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해 그려내는 것은 척박한 현실을 넘어서 이상적인 길이 그곳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몽환적이며 작위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환영들을 만들어내고 보는 행위가 현실을 현실 너머의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 너머의 공간은 본인이 꿈꾸는 상태의 이상향 일수도, 다시 돌아가고픈 과거의 영광일수도 있으며 가장 원하는 감정의 상태일 수도 있다.

1 *Peaceful scenery#2*
2023, Acrylic on canvas
60.5X91cm

2 *빛 속으로 한 걸음#11*
2023, Acrylic on canvas
73X117cm

3 *빛 속으로 한 걸음#8*
2023, Acrylic on canvas
73X60.5cm

4 *빛 속으로 한 걸음#16*
2023, Acrylic on canvas
28X36cm

5 *빛 속으로 한 걸음#5*
2023, Acrylic on canvas
41X51cm

1

2

3

4

5

양천

51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다.'

중국의 엄격한 <Zero - COVID>를 주제로 한다. 극단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위험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간성은 간과되고 잊혀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단결하여 대중화 해야만 한다.

이 COVID 튜브는 우리의 비인간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고, 중국의 억압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것이다.

1 *무제(無題)*
2023, centrifuge tube
9X6X3cm

2 *結II (knot II)*
2022, Centrifuge tubes, iron,silver leaf
19.4X26.5X46.9cm

3 *무제(無題)*
2022,centrifuge tubes
9X6X3cm

4 *三 人 行 (ménage à trois)*
2023, Centrifuge tube
9X6X15cm

1

2

3

4

양희진

52

'한국의 정서'

자연발생적으로 드러난 세시풍속(歲時風俗) 민속무용은 소박한 감정을 묘사하고 격식이나 일정한 법도가 필요치 않은 틀에 갇히지 않은 가락에 대한 전개를 펼친다.

1 *기원(祈願)*
2022, Digital Hanji Printing
42X59cm

2 *꽃점*
2021, Digital Hanji Printing
42X59cm

3 *염원(念願)*
2022, Digital Hanji Printing
42X59cm

4 *단오선(端午扇)*
2023, Digital Hanji Printing
42X59cm

5 *고향(故鄕)*
2023, Digital Hanji Printing
42X59cm

1

2

3

4

5

오순미

53

'무한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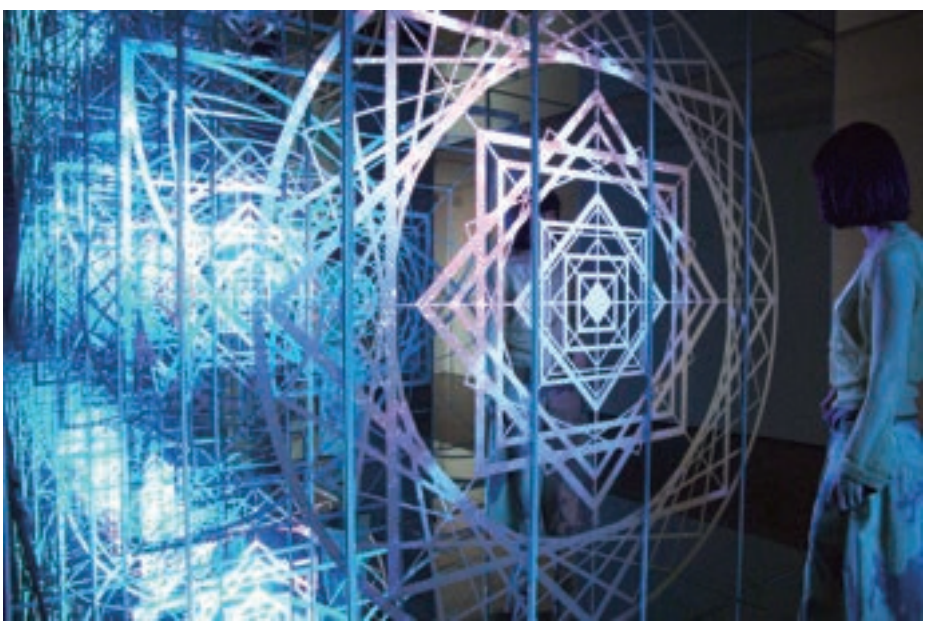
1

1 *Mirror Mask*
2014, 거울,16X16X2cm

2 *Cosmos Fractal_22-+*
2022, 거울에 샌딩 및 아크릴 페인팅 LED변환조명, 73X73X80cm

3 *Chaos Fractal*
2012, Aluminum coating on the Glass, Steel, Two Projectors, Two Microphones, Two Computers, 1650X3200X2450cm

2



3

오휘빈

54

'인간이라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심해(深海)abyss : 닿지 못하는 바다의 가장 싶은 바닥을 갈망한다. 돌이 되어 떨어져야만 닿을 수 있는 그 곳을 위해 기꺼이 돌이 되겠다. 내 숨을 바쳐 저 바닥에 닿고 나면 나는 다시 하늘을 갈망하게 될까.

목표와 그를 위한 수단, 그리고 도달함에서 오는 감정까지의 과정을 글로 남기고 그 모습을 형태화하였다.

1 *바닥에서야 비로소*
2023, 캔버스 위 유화
116.7X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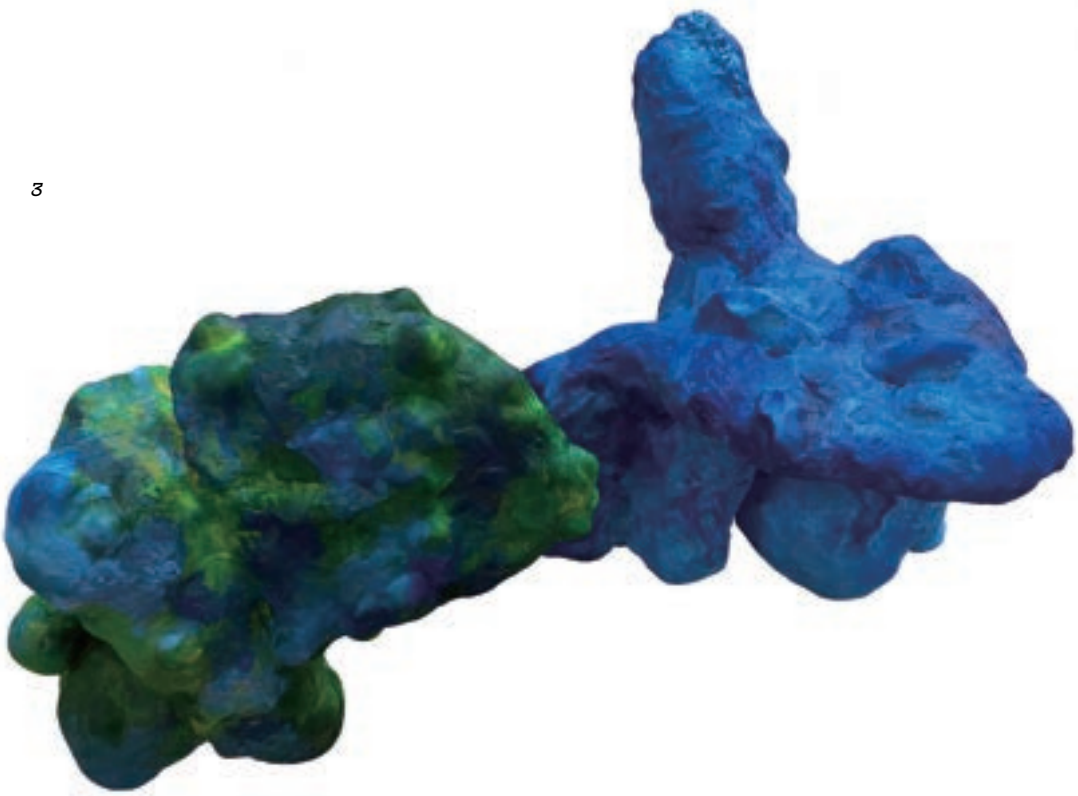
2 *Abyss(심해:深海):기꺼이 돌이 되겠다*
2023, 레진

3 *Abyss(심해:深海):기꺼이 돌이 되겠다*
2023, 레진

1

2

3



우솔

55

'어디에나 조화로운 그림자 같은 그림.'

빛과 어둠은 공존하며 사람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림자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당신은 지금 빛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혹여나 어둠을 보고 있다면 빛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어둠이 아주 짙어 먹과 같다면 누구보다 강한 빛이 등 뒤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림자는 밝을수록 짙어지는 어둠이니까.

나는 내 등 뒤에 드리운 그림자 나에게 내려앉은 내면의 그림자를 물감 삼아 그림으로 표현한다.

1 *Flow of emotion-2023-024*
2023, Acrylic on canvas,
90.9X65.1cm(30P)

2 *Confused tranquility-2023-005*
2023, Acrylic on canvas,
65.1X90.9cm(30P)

3 *Silent darkness-2023-021*
2023, Acrylic on canvas,
65.1X90.9cm(30P)

4 *Shape of a shade-2023-017~20*
Acrylic on canvas,
53.0X4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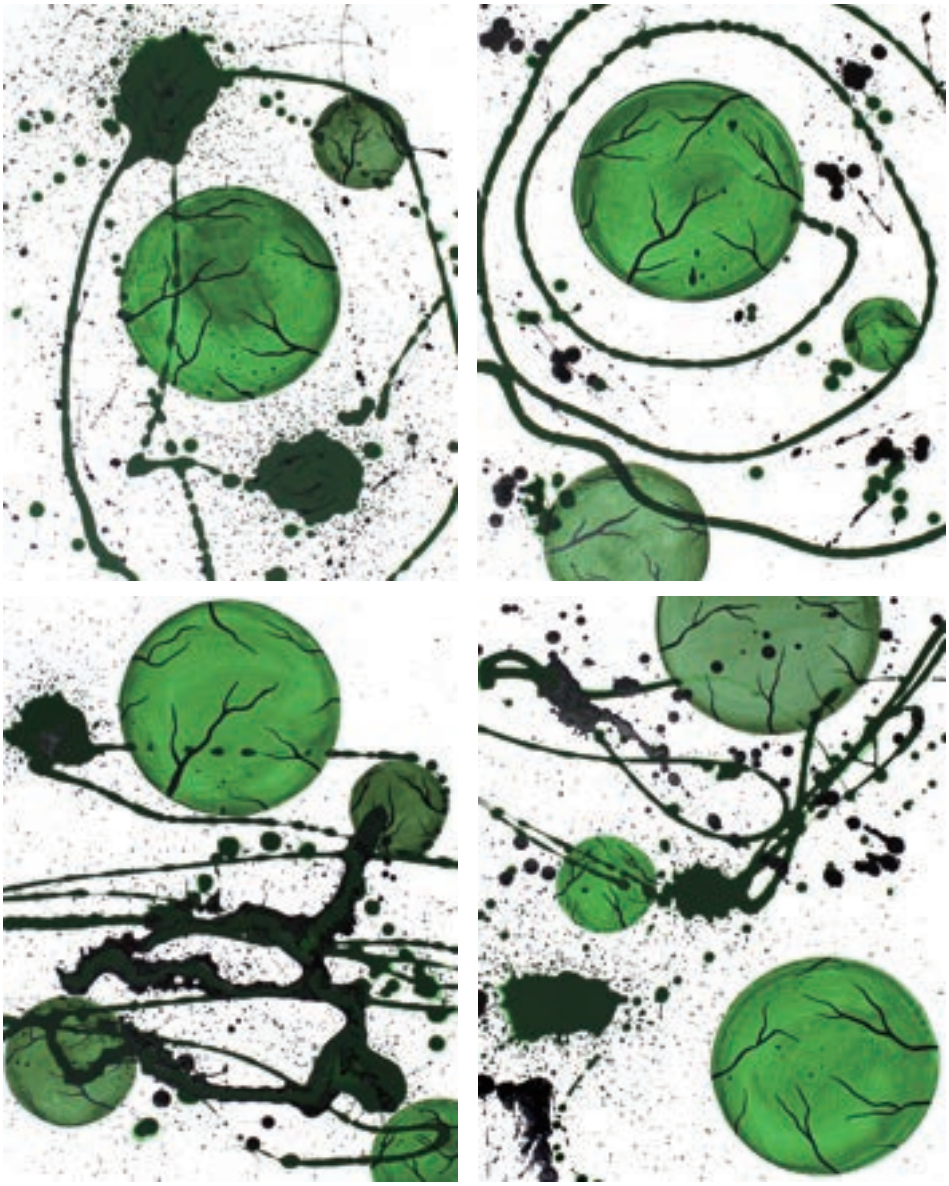
5 *火-2022-026*
2022, Acrylic on canvas,
30X30cm

1

2

3

4



5

유리

56

'소통의 여러 측면을 표출하고 감추기를 반복한다.'

기본적인 소통의 표출인 텍스트 작업을 하며 다양한 오브제와 재료,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픽션의 의미가 소멸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어 관람자에겐 자신만의 의미와 스토리를 다시금 생산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소멸이 발생하는 수많은 과정의 반복적인 연속을 만든다. 그 과정속에서 모두 각자의 스스로를 지속하길 바란다.

1 *의심*
2021, Mixed media on canvas
40cmX40cm

2 *얼음요새*
2022, Mixed media on panel,
50cmX100cm

3 *억지*
2017, Mixed media on panel,
60.6cmX72.7cm

4 *예측불가*
2020, Acryilc on panel,
14cmX18cm

5 *네가 서 있는 곳*
2021, Oil on canvas,
45.5cmX65.1cm

1

2023 BBAF

유림 최유림

57

'Remember an analog.'

2018년 열우물마을을 시작으로 청천동, 산곡동 등 지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 *사라진 마을 02*
2021, Inkjet print on Enhanced matte paper, 83X56cm

2 *사라진 마을 03*
2021, Inkjet print on Enhanced matte paper, 83X56cm

3 *사라진 마을 04*
2021, Inkjet print on Enhanced matte paper, 83X56cm

4 *사라진 마을 01*
2021, Inkjet print on Enhanced matte paper, 83X56cm

1

2

3

4

육은정

58

물 속에 핀 풀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원초적인 자연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와 현 사회에서 존재하여 얽히고 살아있는 것, 살아 있기를 원했던 것을 회화로 담고 있다.

1 *소용돌이*
2022, Oil on canvas, 60X40cm

2 *자연구현 쪼개기*
2022, Oil on canvas, 10X10cm

1

2

윤공주

59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그리다.'

집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나의 어딘가에 존재한다.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결국 돌아갈 곳은 집.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닌 안식처(home)로 상징되어 이상화 된다. 비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현실의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어쩌면 현실 속에 존재하여 비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집. 집은 나를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안식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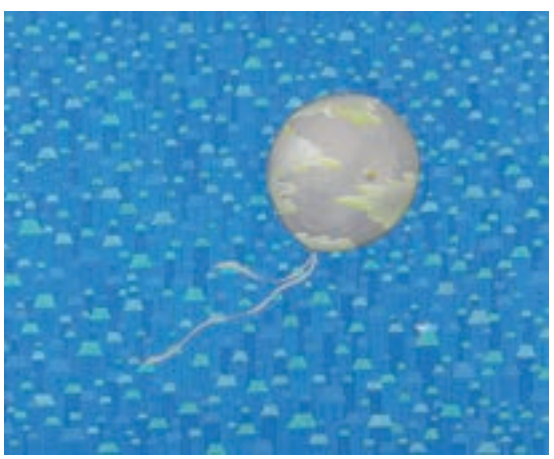
1 *Some days 너가 생각나*
2022, 비단에 석채 분채, 51X63cm

2 *Some days 들켜버린 마음*
2022, 비단에 석채 분채, 51X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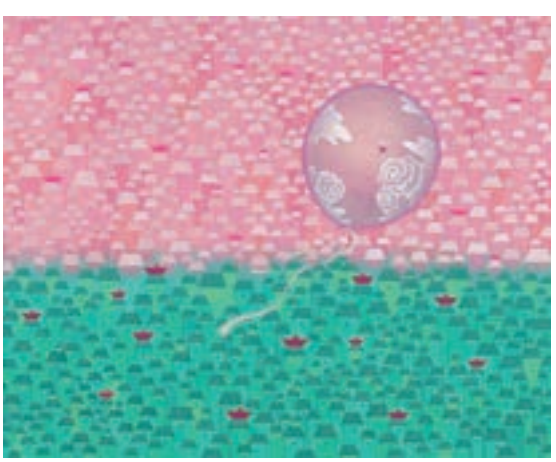
3 *Space of life #1*
2022, 비단에 석채 분채, 79X60cm

4 *Space of life #2*
2022, 비단에 석채 분채, 79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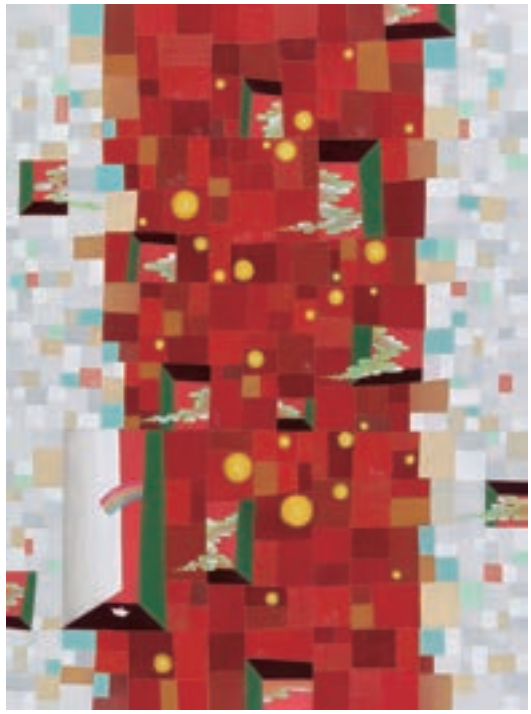
5 *To the Rhythm #10*
2023, 비단에 석채 분채, 63X51cm



1



2



3 4

5

윤산

60

'웃픈 디깅으로 잠시 청명함을 찾으려는 시도'

지난한 현상의 좌절된 구멍을 유사 경험으로 채우고 마치 그것을 획득했다고 믿는 습성에 호기심을 가진다.

현시대 얇은 패널 속 이미지들에 배반당하기도, 몸을 뉘어보기도 하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한다. 그 사이 감각들은 회화와 조각, 영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맴돌고, 그들을 이어보려고 한다.

1 *BUMP!*
2020, Oil on canvas,
116.7cmX90.9cm

2 *Love sick*
2021, Oil on canvas,
33.4cmX45.5cm

3 *Mewing*
2022, Oil on canvas,
27.7cmX22.1cm

4 *Even*
2022, Resin, Oil on canvas,
42cmX34.5cm

5 *차 마실 시간이니까 그만 가줘*
2020, Oil on canvas,
50.2cmX60.5cm

1

2

3

4

5

유정 최유정

61

'따뜻한 빛의 통로로서 유리 작품을 만들다.'

종이에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듯이 한지 느낌의 화기에도 꽃과 공간이 기록된다. 유리 파우더가 만들어내는 우연하고 아름다운 색은 파우더 고유의 섬세함이 녹아있고, 섬유가 스며있는 패턴은 하나하나 모두 달라서 특별해진다. 꽃과 공간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오브제에 귀를 기울여보자.

1 *hanji vase S (white, amber, pink) 2023,Blown glass, 9X9cm*

2 *hanji base M (white, amber, lavender) 2023,Blown glass, 12X12cm*

3 *Hanji Roll(1set) (white,lavender,pink) 2023,Blown glass, white(L) 9X26cm, white(M) 8X15cm, Lavender 12.5X10cm, pink 6X17cm*

4 *Hanji Mono 2023,Blown glass, 9X15cm(S), 16X31cm(L)*

1

2

3

4

이경화

62

'빛과 꽃.'

자연 그대로의 꽃과 식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을 스튜디오의 인공조명을 이용해 형태의 조형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1 *LINE SHAPE 유니폴라*
2022, 피그먼트, 45.5X63cm

2 *LINE SHAPE 안스리움#5*
2022, 피그먼트, 63X45.5cm

3 *LINE SHAPE 튤립#04*
2022, 피그먼트, 63X45.5cm

1

2

3

2023 BBAF

이다겸

63

'텍스트 대신 선으로 이야기를 그리다.'

문자를 대신해 선으로 캔버스 위에 이야기를 짓는 페인팅 작업을 한다. 선은 글쓰기의 시각적 형태이다. 선의 나아감은 시간성을 암시하고, 이야기 또한 시간을 타고 진행된다. 회화에 수없이 접어 넣은 선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읽어볼 관객을 위한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의 사유방식에 따른 활동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며 화면을 채워 나가는 작업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나의 작업에서 선은 나만의 이야기(narrative)이다.

1 *Found Narratives 4*
2019, Acrylic on canvas
45.5X45.5cm

2 *Narrative of the May*
2022, Acrylic on canvas
40.9X24.3cm

3 *A Casual Plot-Sunset*
2023, Acrylic on canvas
54X33.4cm

4 *A Woman Wearing a Duck Puppet*
2023, Acrylic on canvas
54X33.4cm

5 *A Casual Plot 2*
2020, Acrylic on canvas
45.5X45.5cm

1

2

3

4

5

이려진

64

'익숙한 것들로 가득 찬 가장 낯선 장면.'

일상과 비(非)일상의 어딘가에서 사람과 환경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붙잡아 이미지로 기록한다. 연필 등 간단한 건식재료를 활용하여 거칠고 투박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라질 상상이나 기억, 감각을 재생하는 키네틱 장치를 만든다.

1 *고양이와 오리1*
2023, 종이에 연필, 15.9X23.4cm

2 *고양이와 오리2*
2023, 종이에 연필, 15.9X23.4cm

3 *노우드2*
2023, 종이에 연필, 54.5X39.3cm

4 *노우드1*
2023, 종이에 연필, 39.3X54.5cm

1

2

3

4

이민구

65

'생성과 소멸,
사라지고 다시 피어오르는 것들에 의미를 탐구한다.'

작업은 대부분 자연의 형태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나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자연과 감정의 순환을 연결 짓는다. 동시에 도시에서 대조되는 현실과 이상의 틈을 나타내고자 한다.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이 일정한 주기와 순환을 가진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일정한 주기와 순환을 가진다. 우리는 슬픔, 기쁨, 불안,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기억을 축적한다. 겹겹이 쌓인 기억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기로에서 표출된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표출하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낸다.

생성되고 소멸되고, 덮이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은 자연과 인간 모두 반복하는 요소이다. 작업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은 기억, 몸, 붓질, 색 등 '그리기'의 행위에 의해 섞이고 변화한다. 각각의 레이어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으며, 서로 겹쳐지고 뭉개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와 이미지로 재생성된다. 이는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회화 안에서 감정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 *소멸되고 피어오르는1,2*
2023, Oil on canvas, 41X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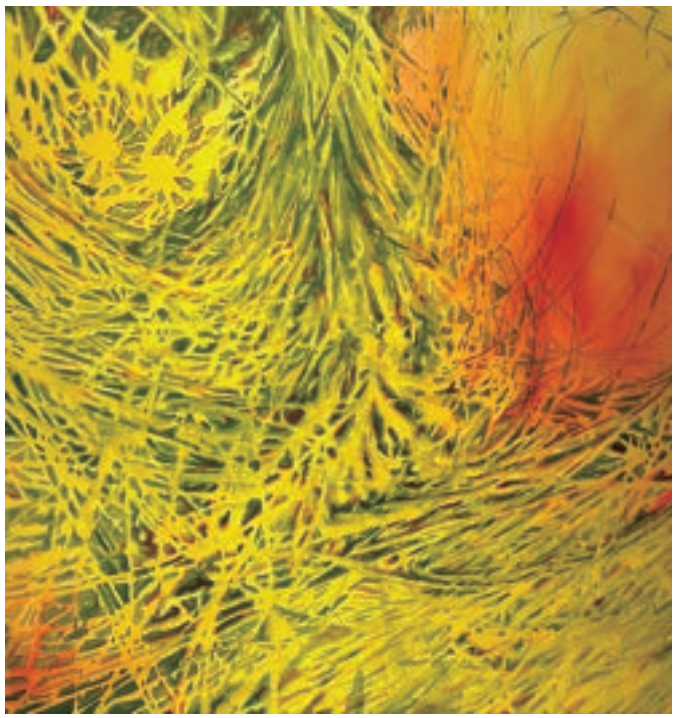
2 *소멸되고 피어오르는*
2023, Oil on canvas, 41X27.5cm

3 *쏟아지고 피어오르는*
2023, Oil on canvas, 80X80cm

4 *덮이고 피어오르는*
2023, Oil on canvas, 117X80cm

1

2



3

4

이상민

66

'순수의 시대.'

"그림에는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안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나는 꿈과 기억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회화를 그린다."

동화적인 풍경, 현실에 중첩된 이상과 심상을 다룬다. 작품 속 알록달록 숲과 숲에서 사는 다람쥐, 사슴과 같은 동물, 열기구, 풍선 등 외롭고 연약하지만 내면의 강한 의지와 믿음을 형상화한다.

그림에는 하늘, 바다, 들판, 꽃…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 하늘과 바다는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 공간이며 그곳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곳에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꽃, 동물과 같은 생명체는 내 자신을 의미한다. 작품 안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때로는 홀로 씩씩하게 살아간다. 특히 나를 닮은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는 말처럼 나는 반복과 루틴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다람쥐가 모아두고 찾지 못한 도토리에서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는 것처럼 나의 작품들로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1 다람쥐S의 여행
2022, Acrylic on canvas
90.9X72.7cm

2 낙타의 꿈
2022, Acrylic on canvas
72.7X60.6cm

3 봄을 기다리는 마을
2022, Acrylic on canvas
65.1X53cm

1

2

3

이소연

67

'자발적 명령이 불가능한 상태.'

시각적 무의식에 우리는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이며, 비합리적인 직관의 세계에 얼만큼 의존하는가. 실재(existence)라는 것, 물체는 오로지 '지각됨'으로써 존재한다. 지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본인은 지각된 모든 대상들을 화면에 담고 있다. 지각하고 사유하며 만들어진 정보들을 관념이라 칭하며 관념들을 실재화 시켜본다.

1 *영토에 꽃이 피면3*
2023, Acrylic on canvas, 45X27cm

2 *영토에 꽃이 피면*
2022, Acrylic on canvas, 107X81cm

3 *영토에 꽃이 피면2*
2022, Acrylic on canvas, 72X60cm

1

2

3

이양헌

68

'기존의 형상 혹은 현상을 마주하여 '망상(望像)'한다.'

그들은 모종의 사건을 일으켜 그들의 세계로 나를 초대한다. 그곳에 초대받아 경험하는 새로운 감각적 요소들에 집중하며, 이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형상, 이름, 환경, 기억들이 아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자각한다.

1 *Night Dancer*
2023, Oil on canvas, 22X22cm

2 *Sparkling*
2022, Oil on canvas, 150X160cm

3 *Greeny*
2023, Oil on canvas, 34.8X27.3cm

4 *Dancing*
2023, Oil on canvas, 210X50cm (4ea)

1

2

3

2023 BBAF

4

이영숙

69

'<나> 라는 존재를 통해 관계의 얽힘 속에서 새로 태어 난다는 공속성 이 '공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쳐낸다.'

'공전'은 공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소급'과 반복을 사용한다. 작업의 재료로 사용한 Wood/(A.L)Wire/ 가죽/LED조명에 스며있는 개인적인 유년의 기억은 과거의 소급을, 나무와 와이어로 만든 중첩된 원은 반복을 표상한다.

무수한 반원이 반복적으로 얽혀버린 공간의 일부가 됨과 동시에 공간과의 '관계형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구가 고리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반복의 차이가 새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동일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대로 나무 재료를 원형으로 재단하고 와이어를 원형으로 감아서 무수한 반복 끝에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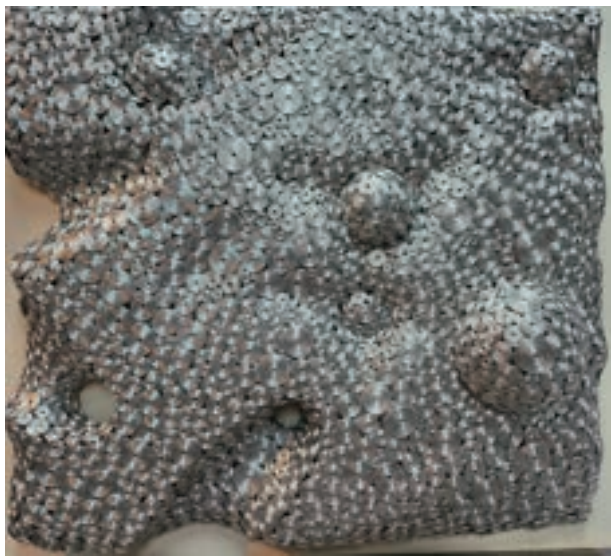
1 퍼플문
2023, Aluminium wire, 혼합재료, 60X60X60cm

2 밀키웨이1
2023, Aluminium wire, 혼합재료, 45X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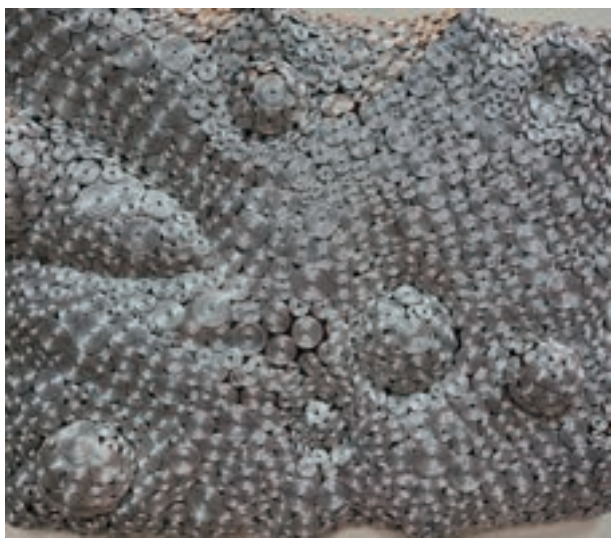
3 밀키웨이2
2023, Aluminium wire, 혼합재료, 45X55cm

4 천계의 문
2022, Aluminium wire, wood, LED, 120X120cm(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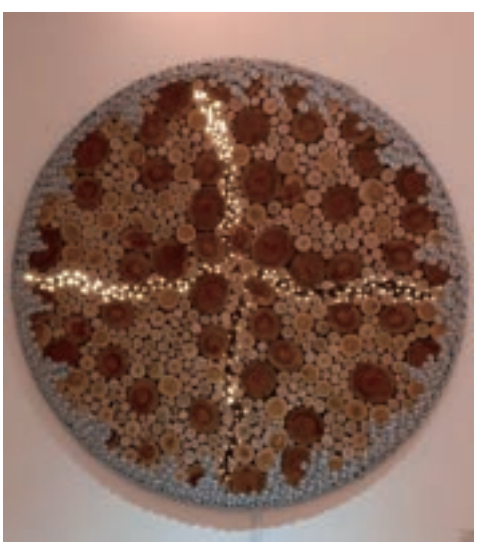
2



3



2023 BBAF



4

이이나

70

'외형을 초월하여 동물의 실재를 마주하다.'

동물이라는 실재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이다. 타자성에 주목하여 동물을 마주하면 동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실재와 마주한다. 나는 그들의 벌거벗은 얼굴과 냉혹한 죽음을 검은 환영속에 숨겨 놓고 은유적으로 넌지시 그들을 불러내는데,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반려동물일수도 음지에서 인간에게 학대받고 있는 동물일수도 있다. 작업 속 환영과 대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Hidden19*
2022,Acrylic and conte on canvas, 31X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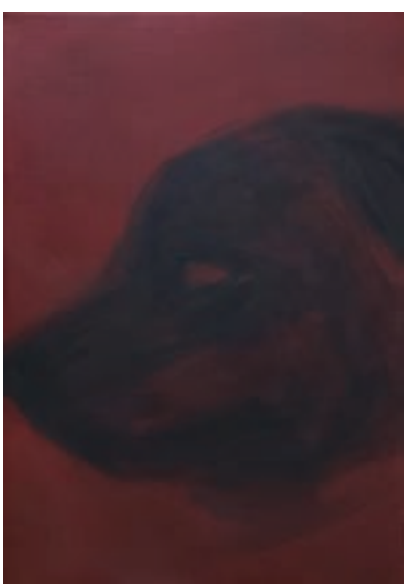
2 *Portrait of the Unknown2*
2023, Acrylic on canvas, 26X18cm

3 *unknown4*
2023, Acrylic and conte on canvas, 116.8X91cm

4 *unknown5*
2023, Acrylic and conte on canvas, 116.8X91cm

5 *unknown1*
2023, Acrylic and conte on canvas, 33.4X21.2cm

1



2

3

4

5

이정엽

71

'나르시시즘을 표현한다.'

작품에 표현된 회화적인 굴곡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향한 복잡하고 미묘한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이 굴곡들은 이어지며 완성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원색적인 색감은 감춰진 내면의 내재적 욕망의 표현이다.

1 *Narcissism#1*
2023,옷칠, 난감, 금박, 삼베,
45.5X45.5cm

2 *NEW FACE Narcissism#mirror*
2023,옷칠, 삼베,
100X100cm

3 *Narcissism#2*
2023,옷칠, 난감, 금박, 삼베,
45.5X45.5cm

4 *Narcissism#3*
2023,옷칠, 난감, 금박, 삼베,
45.5X45.5cm

1

2

3

4

이정희

72

'인간 중심의 사회 속, 소외된 존재들을 이야기하다.'

'함께 살아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절대적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제의적 요소들을 상징적 장치로 사용해 인간에 의해 소멸당한 존재들을 인간이 존귀하게 여겨야하는 대상으로 전환시키거나, 작품 속 대상과 관람자를 마주보게 하여 상호존재를 인식하게 하며 존재의 존엄성을 이야기한다.

1 *응시(22-5)*
2022, 광목에 채색,
45.5X37.9cm

2 *응시(22-3)*
2022, 광목에 채색,
45.5X37.9cm

3 *별유천지(別有天地)-제2경*
2023, 순지에 채색·금박,
60X35cm

4 *별유천지(別有天地)-제4경*
2023, 순지에 채색·금박,
60X35cm

1

2

3

4

이지웅

73

'공간 콜라주 속 페스티벌.'

텅 빈 곳에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을 그려낸다. 음악, 사회, 경제, 정치, 일반 뉴스들 그리고 실제 장면을 한 공간 안에 하나씩 채워 넣었다. 처음 페스티벌 시리즈는 시위와 힙합의 공통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두 가지 모두 부당함에 대한 표현과 행위였다. 불안함을 피하려 자신을 표현하였고 모든 공통적인 요소가 합쳐져 페스티벌을 만들었다. 점차 나의 현재에서 보이는 사물과 나의 깊숙한 이야기를 공간에 펼치고자 한다.

1 *파도소리*
2022,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

2 *그때 거기*
2021, 캔버스에 유화,
40.9X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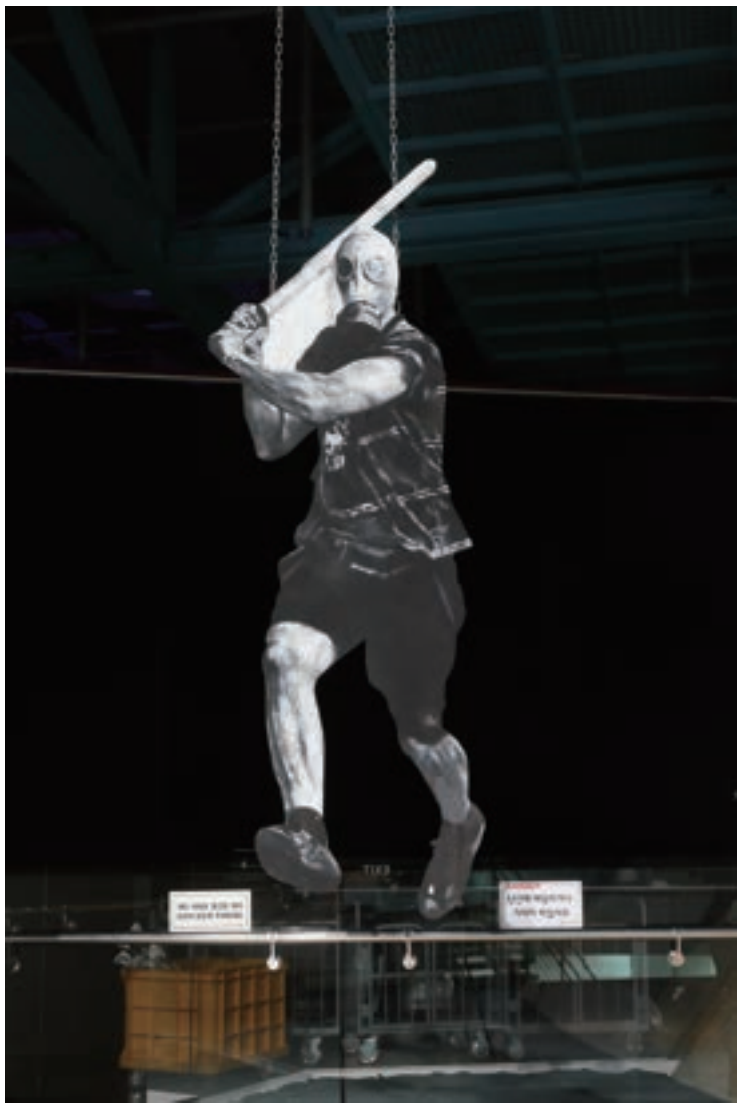
3 *희망사항*
2022, 철판에 페인트,
175X90cm

4 *페스티벌 피스*
2019, 철판에 페인트,
90X64cm,

1

2

3



4

이청규

74

'다양한 집을 그리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그림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인 작가는 본인의 소극적인 정서를 집의 편안함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며 안정시킨다. 다양한 집과 밝은 색의 예쁜 새를 그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1 *바다 위의 도시*
2023, 캔버스 위에 아크릴, 65.1X53cm

2 *춤추는 앵무새*
2023, 캔버스 위에 아크릴, 72.7X60.6cm

3 *지중해 마을*
2023, 캔버스 위에 아크릴, 65.1X53cm

1

2

3

이혜선

75

'자연과 그림은 내게 치유이다.'

지난 어느 날 나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자, 매번 그렸던 꽃과 나무가 싫어 졌다.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용기내 마주한 삶에서, 다시 만난 꽃과 나무 파도와 햇살은 예전의 내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이제 자연의 따뜻함, 청량감, 경쾌함, 생동감, 평안함, 즐거움을 떠올리고 그려내며 아픔을 치유한다. 작업을 보는 관람자들도 좋은 기운으로 일상을 이어 나가길 기도하며.

1 *Glory_moment#+08*
2023, Mixed on canvas,
90.9X65.1cm

2 *Sunflower02*
2023, Paint on canvas,
45.6X53cm

3 *Sunflower03*
2023, Paint on canvas,
45.6X53cm

4 *Grassland03*
2023, Paint on canvas,
41X53cm

5 *Grassland04*
2023, Paint on canvas,
45X53cm

1

2

3

4

5

임수식

76

'현대인의 인문학적 얼굴을 바느질하다'

처음 촬영했던 나의 서가 모습이 또 다른 형태의 초상임을 발견하고 <책가도> 초상을 촬영한다.

<책가도> 연작은 현대인들의 서가를 촬영하며, 확장과 변주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1 *책가도143*
2011,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44cmX73cm

2 *책가도264*
2015,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136cmX79cm

3 *책가도044-1s*
2023,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50cmX35cm

4 *책가도044-5s*
2023,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50cmX35cm

5 *책가도367*
2016, 프린트된 한지에 손바느질, 70cmX100cm

1

2

3

4

5

임원빈

77

'유투브 임원빈을 만나다.'

부평은 일제 시대부터 공장이 많고 인천의 중심부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미군부대가 부평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공원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하였다.

작가는 부평의 아름다운 공원을 중심으로 부평의 꽃을 이야기로 먹과 채색을 이용하여 부평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1 *어느 봄날*
2020, 선지, 먹, 안료,
138X69cm

2 *어느 봄날*
2020, 선지, 먹, 안료,
138X69cm

3 *어느 봄날*
2020, 선지, 먹, 안료,
130X60cm

1

2

3

장인희

78

'각기 다른 부분들이 그 차이를 동력 삼아 전체를 가능하게 한다.'

'나'는 순혈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타자들이 끊임없이 침투하여 탄생한 혼성체이자 복합체이다.

다름이나 차이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기능하는 작품들은 수많은 비-주체적 요소(타자)를 포함하고 있는 혼종적인 '나'의 본질을 재고하게 한다.

1 *A Lump 002*
Hand-cut mirror film and gold leaf on panel, 35X35cm

2 *Trifles 001(skull)*
Hand-cut mirror PET film,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6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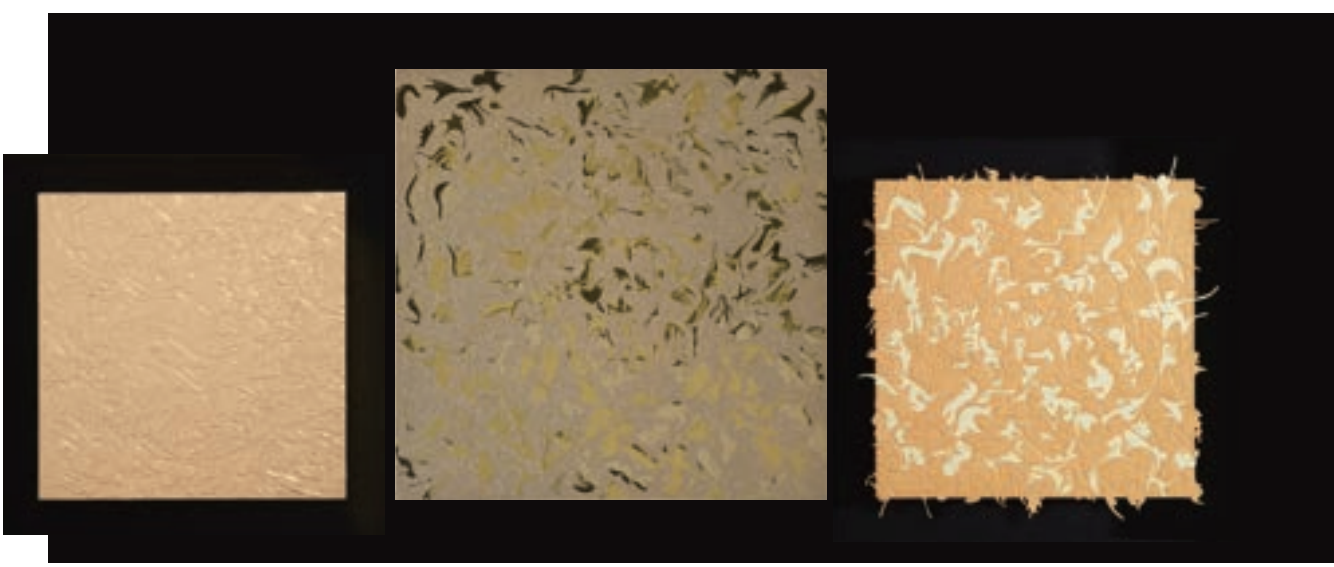
3 *Trifles 002*
Hand-cut mirror PET film and Acrylic on canvas, 40X40cm

4 *The Day and Night1*
Hand-cut miror film, Acrylic mixed media on canvas, 80X60cm

5 *The Day and Night2*
Hand-cut miror film,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80X60cm

6 *In between*
Hand-cut mirror film,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54X71cm

1 2 3



4

5

6

전우현

79

'일상과 교차하는 도시의 오래된 풍경'

나는 학업과 활동을 위해 잦은 이동을 해왔다. 그것을 계기로 화려한 도심 이면의 풍경 그리고 감정에 대한 관찰과 고민을 작업으로 풀어낸다. 화려하거나 높은 곳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발견되는 흔하고 사소한 미물들을 주로 관찰하며 그 대상에 나의 태도나 사회적 이야기를 투영시켜 담아낸다.

1 *순간의 풍경*
2021, Oil on canvas, 145X90cm

2 *경계에서 본 풍경#25*
2019, Oil on acrylic canvas, 53X41cm

3 *머무른 자리*
2021, Oil on canvas, 86X86cm

4 *전우현_골목에서*
2022, Oil on canvas, 65X50cm

5 *숨고르기*
2022, Oil on canvas, 33X21cm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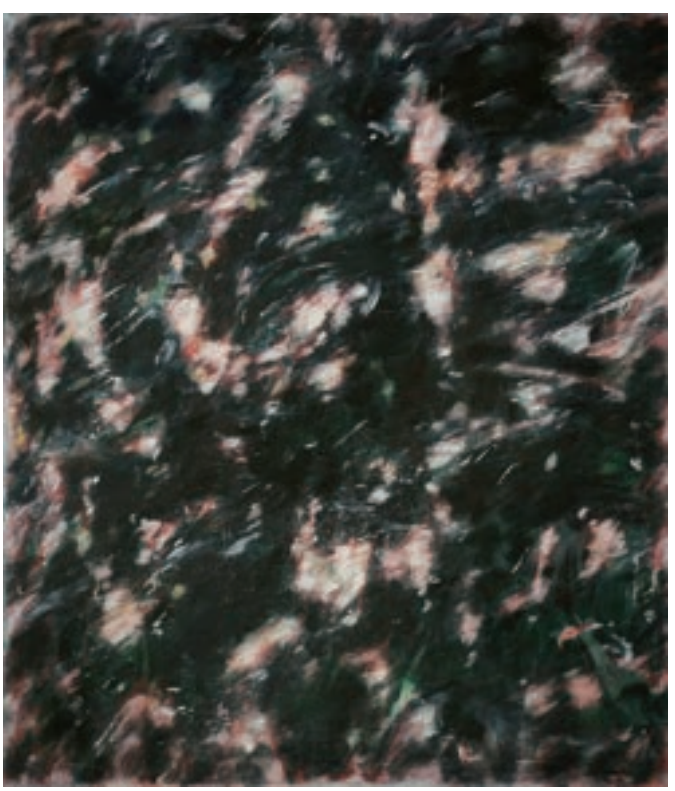
5

전찬종

80

'인상의 기록'

나는 내가 마주한 장면을 묘사하여 기록한다. 묘사는 사실적인 형태의 묘사가 아닌,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사라지는 기억의 장면 속 인상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기억 속 남아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감각하며 그려내 화면을 재구성하여 기록한다.



1

2

1 *넘쳐흐른 빛*
2023, Oil on canvas, 53.0X45.5cm

2 *Wipe it*
2023, Oil on canvas, 22.0X22.0cm

3 *울렁진 빛무리*
2023, Oil on canvas, 34.8X27.3cm

4 *푸른 사이빛*
2023, Oil on canvas, 53.0X45.5cm

3

4

전희경

81

'보이지 않는 세계를 펼치다.'

나는 자연과 풍경, 삶과 현실 등에 대한 관념과 생각, 시각적 믿음 등의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뚫고 그 틈 사이로 침투한다. 그 미세한 틈새의 공간에 회화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를 화면에 펼쳐 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추상적이고 풍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저 너머의 세계를 감상자에게 제안한다. 나의 회화 안에서 감상자들이 각자만의 세계를 만나고 여행하길 바란다.

1 *마흔의 봄2*
2021, 캔버스에 아크릴, 50X50cm

2 *미래의 어느날*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16X91cm

3 *달*
2021, 캔버스에 아크릴, 50cm(diameter)

4 *짧은 낮잠9*
2022, 나무에 아크릴, 30X30cm

5 *짧은 낮잠2*
2022, 나무에 아크릴, 30X30cm

1

2

3

4

5

정문희

82

'자연에서 발견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표현한다. '

1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23, Mixed media,
72.7X60.6cm

2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23, Mixed media,
72.7X60.6cm

3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22, Mixed media,
72.7X53cm

4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23, Mixed media,
27.3X22cm

5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20, Mixed media,
53X41.3cm

1

2

3

4

5

정진

83

'물질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세상의 질서와 기본 규칙은 <높고 낮음, 흐름, 깊고 얕음> 이며 이것을 연구한다. 연구의 내용은 존재물,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를 상호작용하게 하는 약속, 바로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질서는 물질과 정서를 움직이게 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며 균형을 만들고,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조화도 갈등도 만들어낸다. '물리적 세상과 인간과 인간의 만든 사회'의 원리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1 높고 낮음 흐름 깊고 얕음에 대한 연구1
2023,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
100x80cm

2 높고 낮음 흐름 깊고 얕음에 대한 연구2
2023,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
100X80cm

3 높고 낮음 흐름 깊고 얕음에 대한 연구3
2023,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
65X53cm

4 모든 것을 위한 획7
2023, 캔버스에 오일,아크릴,
53X46cm

5 모든 것을 위한 획9
2023,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
53X46cm

1

2

3

4

5

정진석

84

'내가 살았던 시절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다.'

나는 당대 현실의 아픔과 기쁨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좋은 작가란 동시대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이를 각자의 언어로 담아내는 사람이다. 삶은 힘겹지만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1 *금요일의 섬*
2022, Oil and oil pastel on linen, 30X60cm

2 *이마도 노을*
2022, Oil and oil pastel on linen, 30X60cm

3 *K 양*
2022, Oil and oil pastel on linen, 40X32cm

4 *루앙프라방 소년승*
2022, Oil pastel on linen, 78X33cm

5 *정물*
2021, Oil and oil pastel on linen, 40X32cm

1

2

3

4

5

조혜은

85

'May I Help You?'

캐릭터<미래>는 언제나 그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먼저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안다. "May I Help U?"는 인간세상에 들어온<미래>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관계의 선을 지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1 *May I Help U?*
2023, 린넨 위에 아크릴릭,
45X53cm

2 *<미래>는 기다릴 수 있어!!*
2023, 린넨 위에 아크릴릭,
45X53cm

3 *<미래>가 왔어!*
2023, 린넨 위에 아크릴릭,
72X60cm

4 *<미래>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
2023, 린넨 위에 아크릴릭,
91X91cm

5 *<미래>:May I Help U?*
2023,린넨 위에 아크릴릭,
49X45cm

1

2

3

4

5

청화 오지혜

86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자기 진화.'

우울증, 불면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뇌파의 기능에 주목하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의 특징들을 드로잉 한다. 뇌에서 나오는 파동들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과 이 과정들의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자기를 마주하는 치유공간까지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 *Self disunion*
2022, 캔버스 위에 유화,
45.5X53cm

2 *Untitled(뇌 드로잉) NO.5*
2023, 종이판넬 위에 혼합매체,
45.5X45.5cm

3 *Untitled(brainwave)*
2018, 종이판넬 위에 아크릴과 펜,
29.7X42cm

1

2

3

최성덕

87

'하나의 대상에 또 다른 이면을 조각하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나는 하나의 사물에서 느껴지는 또다른 이면에 대해서 고민한다. 서로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면의 것들을 발견해 본다.

1 *다르게 보기2*
2023,캔버스에 아크릴,
29.7X29.7cm

2 *내면의 자화상*
2022, 캔버스에 디지털프린트, 아크릴, 72.7X60.6cm

3 *이중성2(수박과 바나나)*
2022,레진에 아크릴,
25X15X30cm

4 *다르게 보기*
2023,캔버스에 아크릴,
29.7X29.7cm

5 *이중성2*
2022,레진에 아크릴,
15X15X4cm

1

2

3

4

5

최주림

88

'꿈을 칠하며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다.'

다양한 탈것들에 생명력을 주어 그 역동성으로 '꿈'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 공간과 탈것들을 분해하고 조각내 화려한 색으로 채색하는 나만의 조형 언어는 나의 유희의자 꿈의 표현이다. 작품 속 탈것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 에너지를 얻어 힘을 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었다.

1 *Car, tinted With Colors*
2020, Mixed Media on canvas, 45.5X53.3cm

2 *누가 먼저 별을 딸까*
2020, Mixed Media on canvas, 72.7X60.6cm

3 *section17*
2022, Mixed media on canvas, 38X38cm

4 *차, 나비와 함께 꿈꾸다4*
2020, Mixed Media on canvas, 116.6X91cm

5 *달 잡고 뭐해*
2021, Mixed media on canvas, 90.9X72.7cm

1

2

3

4

5

최지현

89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이야기'

<보기>가 없는 숨은 그림에는 누구나 찾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작업을 시작할 즈음 겪은 친한 친구의 죽음이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그리게 된 계기이다. 작업의 시작은 친구의 죽음이었지만 그리는 과정은 일상의 삶이기에, 모두가 유한한 삶 안에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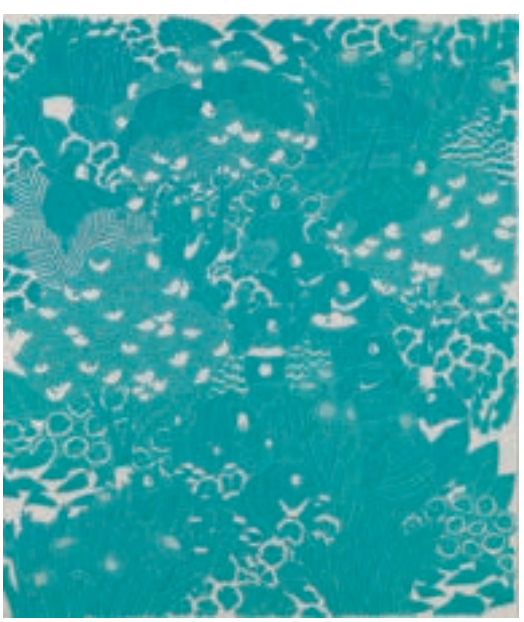
1 *내일의 설렘*
2022, 장지위에 채색
53X45cm

2 *휴일*
2022, 장지위에 채색
53X45cm

3 *너와 함께할 시간*
2021, 장지위에 채색
60.6X90.9cm

1

2



3

추상민

90

1 밤바다
2020,woodprint(ed.1 10),
22.5X28.5cm

2 새벽4시
2020,woodprint(ed.1 8),
28.5X22.5cm

1

2

3

쿠니 이재권

91

'장식의 즐거움.'

화려하고 섬세한 패턴으로 장식된 작품을 만든다. 마법의 손(magic hand)을 외부에 구하지 않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시간이 녹아있다.

1 *요지경 1*
2023, Acrylic on canvas, 50X50cm

2 *LUCKY*
2023, Acrylic on canvas, 91X91cm

3 *Lotus 1*
2022, Ceramic, Glaze, Gold, 62X25X25cm

4 *Kaleido Moon Chalice*
2023, Ceramic, Glaze, Gold, 62X32X32cm

5 *Sweet illusion 2*
2023, Ceramic, Glaze, Gold, 55X32X32cm

1

2

4

5

하자유

92

'사라져 가는 것을 포착할 자유'

내 작업실은 광명에 있는 철거지역이었다.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과 상가들에는 공사안내문이 붙고 동네는 점차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나고 자랐고 수많은 삶들이 지나쳤을 이곳을 나는 그림 언어로 기록할 뿐이었다. 나는 끝없이 변화하는 풍경들 속에서 가는 것과 또 새롭게 마주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소중한 감성을 공유하고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1 *유연한침묵*
2021, 캔버스에 오일,
90.9X7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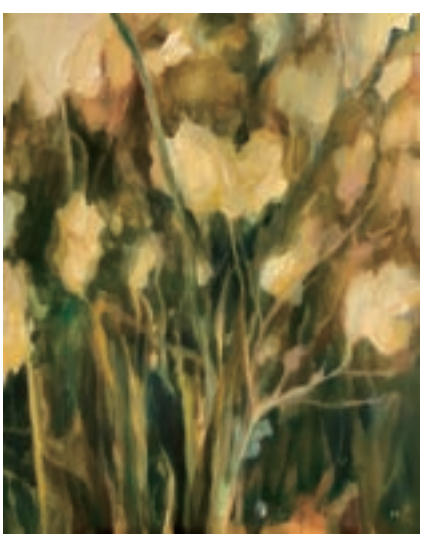
2 *겨울이 꾸는 꿈*
2021, 캔버스에 오일, 물감,
100X80.3cm

3 *고양이처럼 어디에나 가볍게*
존재하는 거지
2022, Oil on canvas,
72.7X60.2cm

4 *마주친 아늑한 풍경*
2021, 캔버스에 오일, 물감,
45.5X45.5cm

5 *계단을 올라가다*
2021, 캔버스에 오일, 물감,
45.5X45.5cm

1



2

3

4

5

한경화

93

'양귀비가 온통 퍼져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아름다웠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1 *가을을 기다리며*
2023, Paint on canvas, 41X27.3cm

2 *기다림*
2023, Paint on canvas, 45X33.3cm

3 *섬이 좋아요*
2023, Paint on canvas, 53X41cm

4 *꽃들의 속삭임*
2023, Paint on canvas, 40X40cm

5 *숲속의 만끽*
2023, Paint on canvas, 45X33cm

1

2

3

4

5

한송이

94

'그날을 그리다, 여행을 그리다, 추억을 그리다.'

#1. Art Traveler로서 여행, 감성, 치유, 사랑, 심리,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들을 그려낸다.

#2. 작업은 작가의 개인적 신체적 무능감과 상실성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타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한정된 상황 혹은 환경들.

1 *Here we are(신성리 갈대밭에서)*
2014, 캔버스에 아크릴,
30X30cm

2 *연(緣)*
2015, 캔버스에 아크릴,
53X45.5cm

3 *세여자*
2014, 캔버스에 아크릴,
16.5X21.5cm

4 *설렘*
2015, 캔버스에 아크릴,
53X45.5cm

5 *深愛 (심애)*
2014, 캔버스에 아크릴,
45.5X65.5cm

1

2

3

4

5

허선정

95

'일상의 공허함을 비움으로 담아내다.'

나는 '빛'을 표현한다. 빛을 세상에 실체로 바라보며 일상의 모습들을 허상화 시킨다.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은 스스로가 만들며 낸 환영일지 모르기에 대상들과 적정거리를 두어, 이미지를 고요하고 낯설게 만들며 명상적인 분위기로 담아낸다. 절제와 함축의 표현 속에서 공허함을 비움으로 치환하면서 일상을 표현한다.

1 *돌무덤*
2022,장지에 분채,
60.6X91cm

2 *달길*
2022,장지에 분채,
90.9X72.7cm

3 *마주친 내부*
2022,장지에 분채,
116.7X90.9cm

4 *숲과 돌*
2022,장지에 분채,
90.9X72.7cm

1

2

2023 BBAF

3

4

홍정희

96

'빛이 기억에 담기는 에너지와 휴식'

봄날 꽃들의 화려함과 함께 어우러지는 밤하늘의 별빛. 변함없이 순환되며 생성되는 숲속의 에너지. 봄의 활기로운 기운이 생성되는 역동적인 기운. 일상의 모습에서 남겨지는 여러 흔적과 자취들을 별빛처럼 표현한다.

1 *빛의 기억-풍요*
2023, Acrylic on canvas, 24.2X33.3cm

2 *빛의 기억-beginning*
2015, Acrylic on canvas, 33.3X53cm

3 *빛의 기억-yellow*
2020, Acrylic on canvas, 53X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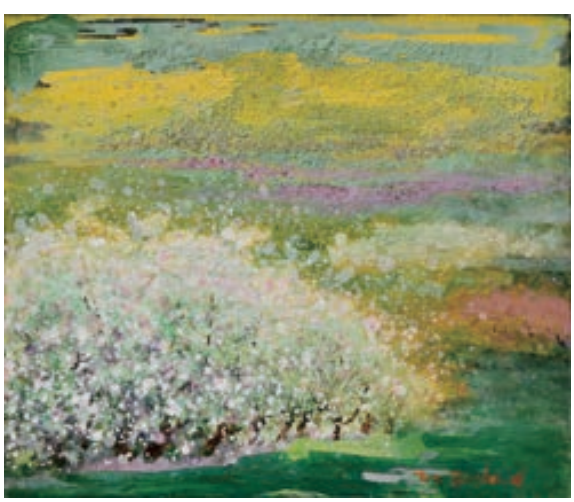
4 *빛의 기억-green*
2022, Acrylic on canvas, 91X72.7cm

1

2

2023 BBAF

3



4

황윤서

97

'하나의 거대한 상점'

나는 유년기 시절부터 수집해온 다양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아트북 형식의 아카이브를 만들어왔다.

이는 스티커나 엽서, 과자봉지 등 인쇄물부터 시작하여 각종 동식물 도감, 70/80년대 대중문화 이미지, 인터넷 밈, 일상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소 방대한 범위로 수집되어 콜라주,드로잉, 회화,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단면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그 중에서도 <Scrap-Post 시리즈>는 과거의 포스터 및 홍보물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를 관찰하며 이미지 속 담긴 대상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되는 시대적/시대착오적 이미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중인 연작이다.

1

1 *문제를 위를 던*
2023, Oil on canvas
45.5X53 cm

2 *Wonderfully trained*
2023, Oil on canvas
53X40.9 cm

3 *수집의 즐거움*
2023, Oil on canvas
53X40.9 cm

GERTIE
WONDERFULLY TRAINED DINOSAURS

2

WORLD'S SMALLEST
수집의즐거움
POLAROID LAND CAMERA

3

황재원

98

'엮여가는 시간의 포착'

시간이라는 것은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엮이면서 쌓여간다.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관계성이 얽혀 있는 시간을 관찰하고 내면에 그 시간들이 어떻게 엮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시간의 축적*
2021, 버려진 나무, 철사, 면실,
80X60X20cm

2 *빌고 또 빌어*
2023, 면실, 솜, 촛대
가변설치

3 *작은 우물*
2023,철사,면실,
60X52X52cm

1

2

2023 BBAF

3

황택

99

'일상의 헛것으로부터 인간의 본능을 추적하다.'

순간의 섬광처럼 번쩍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미지 '헛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진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였던 착각의 이미지에 갖게 된 호기심으로부터 작업은 시작되었다. 자라를 본 적이 없다면 솥뚜껑을 보고 놀랄 일도 없다. 이렇게 내면 깊이 숨어있던 본능의 잔상이 주변의 닮은 형태에 묻어나올 때, 우리는 헛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헛것을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나의 작업은 본능을 엿보는 행위와 같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감춰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한다.

1 *유해동물 보호구역8*
2023, Acrylic on canvas, 72.7X72.7cm

2 *유해동물 보호구역11-1*
2023, Acrylic on canvas, 53X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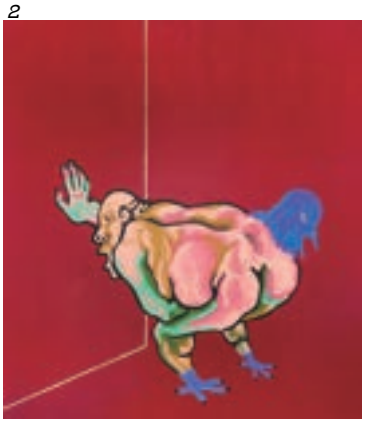
3 *초록불*
2020, Acrylic on canvas, 80.3X100cm

4 *유해동물 보호구역 7*
2023, Acrylic on canvas, 91X116.8cm,

5 *유해동물 보호구역3*
2022, Acrylic on canvas, 72.7X90.9cm

1

2



3

4

5

희박

100

'오늘도 무사히'

1970~80년대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모사되어 한국에서 안위의 아이콘으로 유행했던 '기도하는 소녀'를 통해 오늘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오늘도 무사히'라는 소망의 계보를 따라간다.

1 *기도하는 소녀*
2022, 그물망 위에 스킬자수, 106x106cm

2 *오늘도 무사히*
2013, Acrylic on canvas, 60.5x50cm

3 *숨어있는 달*
2021, Oil pastel on canvas, 73x60.7cm

4 *칼라데아 뷰티스타*
2020, Oil pastel on wood panel, 30x70cm

1

2

3

4

BUPYEONG

2023

BUCHEON

ART
FAIR

1F
MusiCity

조은성

Movie director

'인천메탈시티'

1990년대 인천은 한때 한국 헤비메탈 음악의 성지였다. 인천 관교동 주택 지하에 40-50개의 메탈밴드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 헤비메탈 음악의 흥망성쇠와 결을 같이하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캐스 Kath

Illustrator

1

2

3

'음악이 가졌던 빛나는 언젠가의 순간을 다채로운 색감과 섬세한 화풍으로 담아낸다.'

그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그린다. 그 순수한 열정에는 늘 '재미'가 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개성 넘치게 담아낸 인물 표현으로, 이미지로 소통하는 세대로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기 충분한 따뜻함이 완연한 그림이다.

그가 열광하는 '재밌는 것'을 동시대에는 누리지 못한 본인 또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보석 같은 '내 안의 음악', 그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은 밴드 문화를 사랑하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소유의 한 방식이다. 음악 예술의 찬란했던 장면을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표현하는 시리즈는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며,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시절의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다.

1 *House of Blues*
2020,
Colored pencil on paper,
29.7X42cm

2 *Preservation Hall 2*
2021,
Colored pencil on paper,
29.7X42cm

3 *Preservation Hall 1*
2021,
Colored pencil on paper,
90X60cm

2023 BBAF

2023부평부천아트페어
:경계 없는 아름다움

2023.10.25.-10.29.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65 협성원

총괄 디렉터	추헌민
큐레이터	김재은 공간불모지 대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고민수 공간운솔 대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노찬균
마케터	황주영

그래픽 디자인	www.bbabamstudio.com

공동기획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연대팀 최인호, 노수진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강주현, 용혜영

주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천시
주관	부평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인천관광공사 사회복지법인협성원

2023 Bupyeong Bucheon Art Fair
:Beauty without Boundaries

25 Oct 2023 - 29 Oct 2023
65, Hwarang-ro, Bupyeong-gu, Incheon

Chief Director by	Chu heonmin
Curated by	Kim jaeeun bullmoji
Assisted by	Go Minsu Woonsol
Assisted by	Roh Changyun
Marketer by	Hwang Juyeong

Space Design	BBABAM STUDIO
Graphic Design	www.bbabamstudio.com

Joint Planning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City Center Solidarity Team Choi Inho, Ro Sujin Bucheon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City Department Kang Juhyun, Yong Hyeyoung

Host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Bucheon City
Organized by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ucheon Cultural Foundation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operated by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Hyeopseongwon

인천광역시 부평구 50 부천시 50주년 부평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사회복지법인 협성원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부평·부천 아트페어